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高 慧 禎

1960년대 헤어스타일 변천 과정 분석

- 패션 트렌드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Hair Style Trends in 1960s.

- In the Respect of Fashion Trend -

2004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劉 美 金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高 慧 禎

1960년대 헤어스타일 변천 과정 분석

- 패션 트렌드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Hair Style Trends in 1960s.

- In the Respect of Fashion Trend -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2月 日

漢 城 大 學 校 藝 術 大 學 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劉 美 金

유미금의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정함

2003년 12월

심사위원장 지 상현



심사위원 김 막례



심사위원 고 혜정



국문 초록

본 논문은 1960년대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대한 연구로 1960년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패션 경향을 살펴보고 그 시대의 헤어스타일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 고찰하였다.

아름다움을 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패션(fashion)은 토탈 뷰티(total beauty)의 이미지 역할로 의복,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hair style), 메이크업(make-up), 네일아트(nail art), 미용문신, 미용성형, 피부미용, 미용비만관리 등과 더불어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중에서 헤어는 패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매개체로서 현대로 올 수록 패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헤어스타일이 패션의 분위기와 기조를 바로 알려 주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는 2차 대전이후 새롭게 맞이한 번영의 시대였고 갖가지 문화가 꽃핀 시대였다. 그리고 혁명적인 삶의 방식이 전개되었는데 이중에서 패션과 헤어 쪽에 일어났던 큰 변화를 조망하였다.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대중매체가 큰 위력을 떨치기 시작하였으며 젊은이들이 문화의 주역으로 부상하였으며 대중음악이 활성화되었다. 비틀즈(Beatles), 후(Who), 롤링스톤즈(Rolling Stones), 도어즈(Doors) 등 음악 그룹은 음악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술에서는 팝아트(Pop Art)와 옵아트(Op Art)가 부상하였고 패션으로도 활용되었다.

1960년대는 패션의 구조적 측면에도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난 시대였다. 맞춤복의 시대는 가고 본격적인 기성복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피에르 카르댕(Pierre Cardin),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 등 파리의 유명 디자이너들도 고급 기성복 산업에 진출하였다. 또한 젊은 층의 스트리트패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모즈(Mods)를 필두로 유니섹스(Unisex), 스윙잉런던(Swinging London), 비트닉스(Beatniks), 히피(Hippie), 사이키델릭(Psychedelic) 등이 나타

나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러한 격변의 1960년대는 다양한 머리 모양이 등장하였으며 머리의 기장도 가장 짧은 기장부터 가장 긴 기장까지의 모든 기장이 공존한 시기였다. 1960년대 초는 1950년대에 이어 올림머리인 부팡(Bouffant), 비하이브(Beehive), 시농(Chignon), 타이거테일(Tiger Tail) 등의 유행이 지속되다가 커트의 테크닉이 발달하게 시작하면서 가발이 유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발에만 시행되었던 커트들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트위기 같은 모델이나 비틀즈 같은 연예인들에게 시술되어 인기를 끌었다.

작은 컬과 웨이브는 사라져 갔다. 여성들은 더 이상 세트 스타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 가볍게 손질하기 편한 헤어로 갖게 되었다. 이것은 곧 여성들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각도의 커트를 창안한 비달 사순은 물 속에서조차도 아름다운 커트의 머리를 강조하며 기하학적인 각도의 커트 방법을 창안했다. 이 커트들은 현재에도 모든 커트의 기본이 되고 있다.

반전운동의 반항적인 면과 민속풍의 이국적인 면에 히피가 나타남으로 인해 내추럴 헤어가 유행하였으며 히피의 발달은 유니섹스적인 헤어의 발달로 이어졌다.

오늘날 40년 주기의 유행이라는 말에 맞추기라도 한 듯 1960년대의 유행들이 다시 복고되어 현대 패션과 헤어스타일에 접목되어 표현되고 있다. 루이 뷔통(Louis Vuitton)의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의 모즈 룩을 선두로 재키 룩, 트위기의 미니 등이 다시 현대 패션으로 부활되고 있다. 헤어스타일에서도 커트 스타일이 단연 강세다. 1960년대와 같이 펌과 염색은 커트를 보완하는 역할에 미치는 것도 비슷하다. 다만 커트의 경향이 끝처리에 질감 처리가 많이 되어 가벼워졌다는 것이다. 1960년대는 많은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 격변기, 변혁기 등 많은 단어가 붙는다. 헤어스타일도 그 중 하나였다. 많은 스타일이 서로 같이 어울려 변화의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목 차

국 문 초 록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II. 헤어스타일의 이론적 고찰	4
1. 헤어스타일의 개념	4
2. 20세기 Decade별 헤어스타일 고찰	5
III. 본론	8
1. 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	8
1) 사회적 배경	8
2) 문화예술적 배경	11
2. 1960년대의 패션 경향에 관한 고찰	15
3. 1960년대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관한 고찰	36
1) 올림머리(Up Style)	38
2) 세팅/아이롱(Settint/Ironing)	43
3) 커트(Cutting)	45
4) 펌과 염색(Permanent Wave & Coloring)	61
5) 가발(Wigs)	62
6) 헤어 제품(Hair Product)	66
7) 주요 헤어 디자이너	66
IV. 결론과 제언	74
*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상호작용	
참 고 문 헌	79
ABSTRACT	86

표 목 차

<표 1> 비달 사순과 패션 디자이너의 공동 작업	72
<표 2> 1960년대 Time Chart	73

그 립 목 차

<그림 1> 케네디대통령 내외	9
<그림 2> 아폴로호의 달 착륙	9
<그림 3> 비치보이스 Surfing USA	11
<그림 4> 영국 워튼애비의 ‘러브인’ 축제	11
<그림 5> 바자렐리의 옵아트	14
<그림 6> 1960년대 패션-옵아트	15
<그림 7> 1960년 패션-유니섹스	15
<그림 8> 스페이스 록	17
<그림 9> 히피-재니스 조플린	17
<그림 10> 드레스를 입은 재키	19
<그림 11> 재키록	19
<그림 12> 모즈 잡지	20
<그림 13> 모즈 소녀들	20
<그림 14> 모즈 차림의 배우	20
<그림 15> 모즈 샵 ‘비바’	20
<그림 16> 마리관트와 미니	22
<그림 17> 마리관트	22
<그림 18> 트위기의 미니	23
<그림 19> 이브 생로랑의 팝아트	24
<그림 20> 생로랑의 몬드리안 록	24

<그림 21> 옹아트 룩	25
<그림 22> 생 로랑의 팝아트 룩	25
<그림 23> 피에르 카르댕의 패션	26
<그림 24> 카르댕의 우주룩	26
<그림 25> 꾸레주의 우주룩	27
<그림 26> 꾸레주의 패션	28
<그림 27> 파코 라반의 패션	29
<그림 28> 웅가로의 패션	29
<그림 29> 히피가족	30
<그림 30> 히피들	30
<그림 31> 히피 차림의 비틀즈	31
<그림 32> 사이키델릭 패션	34
<그림 33> 이브생 로랑의 유니섹스 슈트	35
<그림 34> 유니섹스 모드의 세어	35
<그림 35> 1960년대 다양한 헤어스타일	36
<그림 36> 업스타일	37
<그림 37> 공식석상에서의 재키 헤어	40
<그림 38> 재키의 비하이브	40
<그림 39> 비하이브	41
<그림 40> 슈프림즈의 비하이브	41
<그림 41> b-52	41
<그림 42> 타이거 테일	42
<그림 43> 마릴린몬로의 버블스타일	43
<그림 44> 양배추 머리	43
<그림 45> 나탈리우드의 소두마끼	44
<그림 46> 스트레이트	44
<그림 47> 포니테일	45
<그림 48> 모즈 그룹 '후'	47
<그림 49> 모즈 소녀들	47
<그림 50> 모즈 차림의 비틀즈	49
<그림 51> '형태'	50
<그림 52> 그레이스 코딩턴	51

<그림 53> 낸시 쿤	51
<그림 54> 파이프 포인트	51
<그림 55> 비대칭 커트	52
<그림 56> 기하학적 커트	52
<그림 57> 충전 기하학적 커트	53
<그림 58> 에이라인보브	53
<그림 59> 그리스여신 스타일	54
<그림 60> 이사도라 커트	54
<그림 61> 비달 사순의 루디 게른라이히를 위한 작품 1	56
<그림 62> 비달 사순의 루디 게른라이히를 위한 작품 2	56
<그림 63> 트위기 헤어	57
<그림 64> 히피 룩	59
<그림 65> 히피헤어스타일	59
<그림 66> 아프로 헤어	60
<그림 67> 잭슨스-아프로헤어	60
<그림 68> 슈프림즈의 가발	63
<그림 69> 스테판의 가발들	63
<그림 70> 비달사순의 가발	64
<그림 71> 원자폭탄 가발	64
<그림 72> 염색한 가발머리	65
<그림 73> 이브생로랑의 가발	65
<그림 74> 게른라이히의 스모	65
<그림 75> 게른라이히의 가발	65
<그림 76> 마리 쿤트와 비달사순	67
<그림 77> 게른라이히와 사순	67
<그림 78> 카리타 자매	69
<그림 79> 카리타의 해바라기 헤어	69
<그림 80> 알렉상드르	71
<그림 81> 크리스티안	71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잘 잘 표현해 주는 토털 개념을 패션(fash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패션은 토털 뷰티(total beauty)의 이미지 역할로 의복,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hair style), 메이크업(make-up), 네일 아트(nail art), 미용문신, 미용성형, 피부미용, 미용 비만관리 등과 더불어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

특히 헤어스타일은 패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매개체로서 이들의 비중은 현대로 올수록 헤어스타일이 패션에 미치는 영향이 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헤어스타일이 패션의 분위기와 기초를 바로 알려 주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20세기의 기호학자 다이애너 브릴란드(Diana Vreeland)에 따르면 여성의 스타일은 헤어스타일에서 시작하여 의상 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한 바 있다.¹⁾

1960년대는 격변의 시대로 패션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 변화가 심했고 패션 트렌드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다양한 헤어 역사상 중요한 10년이다. 특히 모든 헤어스타일이 공존했던 시기이기도 하다.²⁾

1969년대를 기점으로 헤어가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이것의 시발점으로는 헤어 디자이너인 비달 사순(Vidal Sassoon)을 들 수 있다. 이는 비달 사순을 기점으로 현대적인 헤어 디자인의 형태가 시작되었고 이의 시작으로 패션계 또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그는 패션 디

1) Beauty & Health 연구회, 세기의 헤어 아티스트, 현문사, 2001, p19

2) Bevis Hillier, 조규화 역 ;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Dutton Inc., 1983

자이너 못지않게 현대 디자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두상 부위에 직접 시술되어 행해지는 헤어스타일의 미적 연출 행위에 대한 중요성은 토탈 패션의 요소들 중 하나로 또 다른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최근 들어 의복보다는 시간과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고 빠른 변화가 용이하며 자신의 다양한 개성 연출이 가능한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헤어는 일부분에서 좀 더 실용 학문의 한 분야로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헤어스타일을 교육하는 전문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까지 학과가 개설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헤어스타일 쪽의 학문은 단편적으로 미비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 다시 복고되는 경향을 갖고 있는 1960년대를 재조명하며 사회 문화적인 배경, 예술 사조 등이 어떻게 수용되어 발전되었고 헤어 분야에서는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오늘날 1960년대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40년의 유행 주기에 맞추기라도 한 듯 다시 돌아와 현대 스타일에 접목되어 표현되고 있다. 1960년대의 스타일이 재연되는 시발점으로 모즈 룩의 유행을 주도한 디자이너는 루이 뷔통(Louis Vuitton)의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이며 1960년대의 모즈 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의상들을 선보였다.³⁾ 그리고 2003-04 추동 컬렉션이 뉴욕에서 시작되어 런던, 밀라노, 파리를 거쳐 서울로 이어 졌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스타일이 선보였던 이번 시즌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것은 모즈 룩, 옴아트, 스페이스 룩이었다.⁴⁾ 또한 이번 시즌에 재키 룩(Jackie Look)은 마일드한 패브릭의 사용으로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기하학적인 실루엣에 미래적인 스타일로 제안되었다.⁵⁾ 미니스커트도 다시 부활하는 등 1960년대가 다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60년대는 현대에 더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본다.

3) 여성동아, 2003년 9월호, p114

4) Magazine Seoul Collection Week, March 26, 2003

5) www.samsung.design.com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의 패션 경향을 알아보고 사진을 중심으로 헤어스타일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 테마를 1960년대로 선정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2000년도를 전후로 1960년대의 복고 경향이 현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 패션 도시의 2003-04년 추동 컬렉션에서 1960년대 스타일의 응용이 돋보였다. 미니스커트, 스페이스 룩, 모즈 룩, 옹아트 등이 새로운 패션 키워드로 활용되었다. 두 번째로는 현 세대가 1960년도의 베이비붐 세대의 젊은층 지향의 경향이 강하며 반전사상과 같은 사회 분위기가 1960년대의 베트남전과 지금의 이라크전이 비슷하여 흥미를 일으켰고, 세 번째로는 헤어스타일 부분에서의 영향력이 컸던 비달 사순의 스타일을 탐구하여 그가 시도한 스타일이 현대에도 활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그가 창안한 스타일, 테크닉, 미학을 탐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주요 현상을 언급하고 헤어스타일이 패션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사진과 참고 서적을 통하여 제시, 설명하였으며 세부 설명으로는

- 1) 1960년대의 사회 문화 예술적 배경, 패션, 헤어스타일에 관하여 설명한다.
- 2) 연구의 범위는 유럽 및 미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1960년대의 주요 패션 경향을 설명한다.
- 4) 1960년대의 주요 헤어스타일 경향을 분석한다.
- 5) 표1에서는 헤어 디자이너인 비달 사순이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공동 작업을
표2에서는 각 연도별 시대적 배경과 이벤트, 패션 트렌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정리해 본다.
- 6)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상호 작용에 대해 분석해 본다.

II. 헤어스타일의 이론적 고찰

1. 헤어스타일의 개념

헤어스타일(hair style)이란 헤어(hair)의 머리(두상)이나 머리카락(두발)이라는 뜻과 스타일(style)의 뜻인 시대의 대표적 형으로서 정착된 경우로 모양이나 형태, 룩, 패션과 같은 의미를 나탄낸다는 말이 합친 것으로 두상과 두발에 행해지는 유행의 형태라고 정의하며 머리형, 머리풍, 헤어두(hair do)⁶⁾, 프랑스어로 꾸아튀르(coiffure)라고도 한다.

헤어스타일은 신체를 장식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얼굴의 형태나 유행에 따라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화해 왔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이 있었으며, 여성에게는 예로부터 동서고금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장식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장식 방법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였다.

헤어스타일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는 노예나 하녀들이 윗사람의 모발을 가꾸어 주었고, 중세 시대에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감추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머리 장식 밑으로 모발을 숨기기도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복식, 메이크업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함께 변화하므로 그 시대의 유행 양상과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헤어스타일의 변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6) 정임숙, 20세기 서구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복식변천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2002, p5

2. 20세기 Decade별 헤어스타일 고찰

1900년대

머리를 위로 빗어 올려 장식하는 풍파두르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다. 앞머리는 빗어 올리고 뒷머리는 시농(Chignon)으로 처리했다. 아르누보(Art Nouveau)풍의 곡선미가 두드러진다.

1910년대

영화와 매스컴이 등장한 이 시대에는 보브(bob) 스타일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지금의 단발과 유사한 것이다. 이는 남녀 평등사상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양풍의 터번으로 감싼 머리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현대적인 헤어스타일의 등장을 예감하는 시기다.

1920년대

보이시(boysh)한 짤막한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쇼트 커트가 이 때 탄생한다. 머슴애 같다는 의미의 가르손느(garçonne) 헤어 컷이 인기가 있었다. 대중들은 당시의 인기 있던 영화 스타들을 모방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1930년대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로맨틱해 보이는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는데 헤어스타일은 미디엄 길이의 헤어와 퍼머넌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염색 시대가 전개되었다.

1940년대

이차 대전 이후에 출현한 뉴룩(New Look) 스타일이 헤어에도 적용되었는데, 두상에 딱 달라붙는 시농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두상을 작게 표

현하는 데 관심이 많아서 짧으면서도 우아한 형태의 머리가 선호되었다.

1950년대

미국이 유행의 중심으로 부상하여 포니테일(Ponytail), 버블(Bubble) 스타일, 페이지 보이 보브(Pageboy Bob) 등이 인기가 있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 마릴린 몬로(Marilyn Monroe) 등이 유행을 선도했다.

1960년대

재키(Jackie)의 비하이프(Beehive) 스타일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영국의 10대 모델인 트위기(Twiggy)의 짧은 머리 스타일도 인기가 있었다. 비달 사순(Vidal Sassoon)의 기하학적 커트가 등장했다.

후기에는 헝클어진 머리 형태의 히피 스타일이 유행한다.

1970년대

이 때는 자연스러움이 강조되어 바람에 훑날리는 듯한 길고 웨이브진 머리가 인기가 있었다. 파라 파셋(Farrar Fawcett)의 켄진 헤어가 돋보였다. 유니섹스 모드가 대중화되었고 과격한 핑크족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등장하기도 했다.

1980년대

다이애너(Diana) 황태자비의 부드러운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80년대의 중반부터는 양성적인 모습의 짙은 헤어가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뉴웨이브의 영향으로 특이한 머리 모양, 컬러가 유행했다.

1990년대

90년대 들어서는 슬림한 자연스러운 머리형이 유행하였으며 개성이 강조되었다. 스트레이트(Straight), 레이어드 밥(Layered Bob), 베이직 레이어(Basic Layer) 등 전체적으로 작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제3세계, 에스닉 등 소수의 문화에도 관심을 보인 시기이다.

III. 본 론

1. 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

1) 사회적 배경

20세기는 변화의 시기로 많은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인 시기였다. 20세기 초반에는 제국주의의 시대적 배경과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신비스러운 동양풍인 오리엔탈리즘이 유행하였다.

1914, 1939년에 일어났던 제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모든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호경기에서 일어난 문화의 영향으로 전 유럽에 걸쳐 젊음의 문화가 유행하여 남녀평등사상과 자유연애 풍조가 일어났다. 재즈, 흑인문화, 영화, 자동차, 아르데코, 샤넬로 표현될 수 있다.⁷⁾

1960년대는 2차 대전 이후 새롭게 맞이한 번영의 시대였다. 그 때는 정치적으로는 미소 냉전 구도가 지배했지만, 경제, 과학, 문화, 패션 등 모든 분야가 꽃피던 시대였다. 1960년대 풍부한 문화의 주체는 바로 젊은 세대(Young Generation)이었다. 그들은 이전의 젊은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강한 힘과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바로 그들이다.⁸⁾

60년대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로부터 독립하여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은 대학에 다니면서 돈을 벌거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무교육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교육기간이 길어졌다. 젊은이들은 사회 현상에 대해 비판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도덕과 지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인 젊은 층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젊은이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7) 임석중, 패션트렌드와 헤어스타일 변화의 상관성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2003,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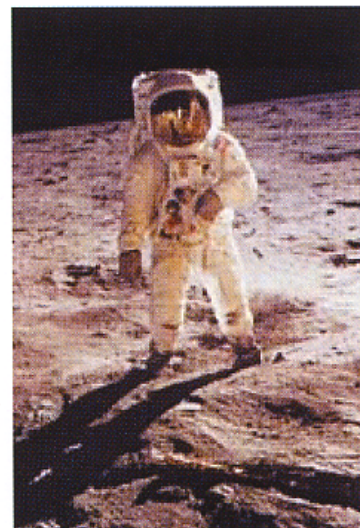
8)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1, p187

되었으며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독특한 청년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기성세대의 일반적인 것에 우위에 두지 않고 새로운 것에 몰두하였다. 기성세대에게는 당연히 충격이었고 이른바 세대 차가 나타나게 되었다.

1960년대의 키워드는 젊음, 저항, 변혁에의 요구, 베트남 전, 핵 공포 등이었으며 젊은이들은 양 대전에서 살아남은 기성세대, 기득권 세력에 철저히 대항하며 정치, 경제, 사회의 변혁을 요구했다.



<그림1> 케네디대통령 내외



<그림2> 아폴로호의 달 착륙

미국은 새로운 번영 시대를 맞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이 발달했으며 TV 등 매스컴이 발전하였다. 미국 서부도 안정이 되어 이제 새로운 문화들이 꽃피기 시작하였다. 이 때는 미국의 우위성이 확립되던 시기로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풍요와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문화적인 면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게 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뉴리더가 되기도 했다.

또한 본격적인 우주 개발이 시작된 때이기도 하다. 1961년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 비행을 하였으며 1966년에는 루나 9호가 달 표

면에 연착륙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1968년 3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아폴로 8호가 달 궤도를 돌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였고 마침내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하였다. 이 때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세 명의 우주비행사와 함께 아폴로 11호로 무사히 지구에 귀환하여 충격을 주었다.

가정용 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은 역사상 큰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특히 텔레비전의 보급은 사람들의 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육체와 정신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여성들은 성의 평등을 위해 싸웠으며 남성들의 분야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1963년 청년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존슨이 그 뒤를 이었으며 베트남 참전을 결정하였는데 이 결정은 반전 운동과 저항의 시작이 되었다.

그후 인종 차별 철폐를 부르짖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의 비폭력 저항 운동, 여성에게 부과된 성차별은 여성을 신비화하는 남성 위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폭로한 베티 프리던(Betty Freedom)의 ‘여성의 신비’ 역시 1960년대에 싹튼 저항문화의 일단이었으며, 또한 미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뽑는 미인대회장 앞에서 브래지어 화형식을 벌인 미국 여성 운동의 ‘폭력적’ 실천은 극히 1960년대적인 정치 운동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전형적인 형태는 도시로의 지향, 도시적인 우아함과 퇴폐의 탐미, 지하철 문화의 지향을 들 수 있으며 민속예술에 대한 주된 관심은 저속하고 통속적인 작품 즉 도시지역의 팝 포크 아트로 바뀌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들어 흑인의 인권을 외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베트남전쟁에 대한 저항 운동,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분위기가 어두워지게 되고 1970년대 들어서 오일쇼크 등으로 세계 경제는 극도로 흔들리게 된다.

1960년대에는 TV수상기의 대중화로 본격적인 TV시대가 시작되었고 영화와 TV의 보급으로 영화배우와 연예인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TV는 여성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다.



<그림3> 비치보이스 Surfing USA



<그림4> 영국 워튼에비의 '러브인' 축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대폭 증가했는데 각종 야외 스포츠가 인기가 있었고 미국 서부 해안에서는 서핑이 유행하였다. 각종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 인기가 있었으며 여성들도 많이 타고 다녔다. 프랑스에서는 시속 300킬로미터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 전철이 등장했다.⁹⁾

각종 가전제품, 생활용품, 교통수단 등 산업 제품들이 고객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개발되었다. 그리고 아이비엠(IBM) 사는 시스템3(System3)라는 네트워크 컴퓨터를 선보였다.

2) 문화 예술적 배경

1960년대는 대중음악이 크게 유행하였다. 1950년대에 시작된 록큰롤은 1960년대 들어서 더욱 다양하게 감각적으로 발전했다.

대중음악의 진원지는 영국이었다. 전통에 반대되는 새로운 문화의 대변자인 비틀즈(Beatles), 후(The Who), 롤링스톤즈(Rolling Stones)등이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다. 이들 스타들은 스트리트 패션의

9) Nigel Cawthorne, Sixties Source Book, Chartwell Books Inc., 1989, p83

야외에서 하는 대규모 축제가 자주 개최되어 1960년대의 주류문화로 부상했다. 미국의 우드스탁(Woodstock) 농장에서 열린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가장 큰 이벤트였다. 사흘 동안 수십만 명이 운집하여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다.¹⁰⁾ 롤링스톤즈는 거칠고 강렬한 비트가 담긴 음악을 했는데 특히 리더 믹 재거(Mick Jagger)는 반항적이고 불량적인 실험적인 행위로 매스컴의 주목을 독차지했다. 그는 패션에도 민감했는데 독특하고 과격한 의상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1960대 후반에는 월남전의 반전 분위기를 미국 서부 출신의 그룹 도어즈(Doors)가 냉소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짐 모리슨(Jim Morrison)의 시적이면서 유혹적인 목소리는 사람들을 흥분 시켰다. 그가 바란 것은 기존 사회로부터의 일탈이었으며 기존 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낙원을 꿈꾸는 히피들의 성향과 일치했다. 그들은 사이키델릭 문화에 심취하기도 했다. 도어즈의 패션은 캐주얼 재킷, 검은 가죽 바지에 낀 셔츠 등 히피 스타일이 어울렸다. 그리고 검은 가죽 바지는 저항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1960년대 전반에 유행한 색은 검정이었다. 프랑스 실존주의가 젊은이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1960년대 후반 들어서 팝아트적인 컬러풀한 원색이 유행하기도 했다. 원색으로 가득 찬 컬러 감각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색상은 블루진의 청색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입어서 유명해진 푸른빛의 청바지는 젊은이들의 상징이 되었다.

1960년대는 대중예술인 팝아트(Pop Art)가 유행하였다.¹¹⁾ 그리고 미니멀(minimal)적인 옵아트(Op Art)도 등장하여 패션에 활용되었다. 팝아트는 대중예술을 의미하며 그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매스컴, 광고 문화에 의해 창조된 예술 양식을 말한다.¹²⁾ 더 좁게 말해서 팝아트는 구상회화의 한 양식으로

10) Nigel Cawthorne, Sixties Source Book, Chartwell Books Inc., 1989, p166

11) 이연희, 이윤정, 이현숙, 진성모, 패션문화, 예학사, p142

12) 정경희, Street Fashion의 발생과 유행현상, 효성가톨릭대 대학원, 1996, p14

1960년대 초 미국에서 발전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만화나 광고 포스터 같은 상업미술의 형식과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팝아트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곳은 영국이었는데 1954년 영국의 미술평론가 로렌스 앨로웨이(Lawrence Alloway)가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 당시 영국에서 대중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순수미술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¹³⁾ 이 팝아트는 이후에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것은 뉴욕화단에서 일어난 전위적인 예술 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팝아트란 용어는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회화작품에 한정되어 쓰였지만 이후 대중매체와 관련을 가진 모든 예술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이 흐름은 유럽 등으로 널리 퍼져 나가게 된다.

평론가 리처드 해밀튼(Richard Hamilton)은 팝 아트란 대중적이면서도 일시적이고, 변화하기 쉽고, 소비성이 높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재치 있으며, 성적(sexy)이라고 규정했다.

가장 성공한 예술가였던 앤디 워홀(Andy Warhol)은 상업광고나 사진인쇄 기법을 활용했다. 지폐, 신문, 코카콜라,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릴린 먼로의 사진을 이용한 작업 등이 대표적이다.

팝아트는 상품 광고 디자인을 적극 이용하였다. 팝아트의 소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매스컴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재구성했다. 당시 발전된 물질문명을 예술로서 활용한 셈이다.

팝 아트가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1960년대에는 서구 산업사회의 물질문명도 황금기를 맞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그 정도가 더했다. 크게 말해 팝아트는 미국적 물질만능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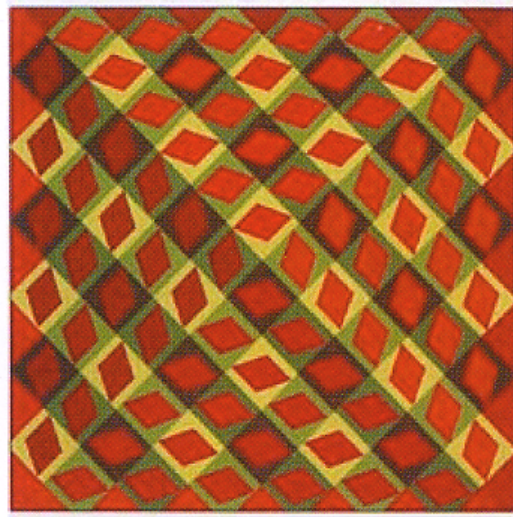
나중에 파리에서는 패션 디자이너인 이브 생 로랑(Yves Saint-Laurent)이 앤디 워홀의 그림을 차용하여 드레스를 만들었다.

팝아트는 아주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모티브를 교묘하게 반복하여 새로운 시

13) Nigel Cawthorne, Sixties Source Book, Chartwell Books Inc., 1989, p42

각 체험을 선사하는 미술이었다. 바자렐리(Vasarely)의 미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일군의 작가들이 새로운 탐색을 시작하였다.¹⁴⁾ 브리짓 릴리(Brigit Lilly), 피터 시즐리(Peter Sizley), 피에트로 도라지오(Pietro Dorazio) 등이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옵아트의 요소는 직물의 무늬나 색상 등 패션 소재에 큰 영향을 주었다. 현란한 시각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옵아트는 사이키델릭 룩(Psychedelic Look)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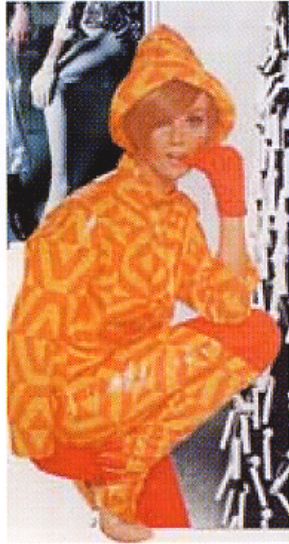
1963년에 이브 생 로랑, 앙드레 쿠레주 등은 흑백의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드레스와 양상블을 선보였는데 대중들의 호응으로 이어졌다. 옷, 모자, 장갑, 구두 등에 흑백의 옵아트 무늬를 볼 수 있었다.



<그림5> 바자렐리의 옵아트

14) Nigel Cawthorne, Sixties Source Book, Chartwell Books Inc., 1989, p45

2. 1960년대의 패션 트렌드 경향에 관한 고찰



<그림6> 60년대 패션-오파트



<그림7> 60년대 패션-유니섹스

1950년대가 전쟁이 끝나고 궁핍한 내핍생활도 끝나면서 좋은 시대인 밝고 생동하는 느낌을 가진 시대였다면, 1960년대는 격동적이고 낙천적이며 혁신에 가득 찬 시대였다. 그에 힘입어 1970년대는 마법에서 각성한 듯한 느낌과 불황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최후에는 펑크(punk)라는 파괴적인 느낌의 스타일로 혼란을 일으켰다.

패션은 지난 수 백 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 패션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 지고 즐거움을 줄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기능을 넘어 창조적인 욕구와 생산적 욕구라는 동 시대 문화의 양축을 만족시키면서 경제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해왔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는 패션의 디테일이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면에서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그 후 단일한 트렌드보다는 변화무쌍한 생활양식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기성복이 주류를 이루게 되며 맞춤복은 서서히 사양길에 접어들게 된다.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가 갑자기 사망한 뒤 혼미상태를 계속하던 파리 패션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은 이브생 로랑의 1964년 봄-여름 컬렉션 발표 현상이었다.

그 이후 피에르 카르댕(Pierre Cardin), 엠마누엘 웅가로(Emmanuel Ungaro), 파코 라반(Paco Rabanne), 앙드레 쿠레주(Andre Courreges) 등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이 전혀 새로운 옷에 도전하였다. 그들도 한결 젊어진 옷차림을 발표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는 팝아트와 옵아트 등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미술이 성행하여 복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과거 1920년대에 유행하였던 샤넬수트나 가르송느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1963년-1964년에는 기능적인 스포티브 룩이라 하여 작업복 스타일이 정장으로 이용되었다.¹⁵⁾

1960년대에는 영 패션의 시기로 불리어 지고 있는데 당시 독특한 청년문화가 형성되었다. 로큰롤음악이 비틀즈, 후, 롤링스톤즈 등에 의해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전 세계 젊은이들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에드워드시대의 우아한 복장스타일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현대적인 의상들을 입었다.¹⁶⁾

특히 1960년대에 직물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인조섬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기성복 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고급 수준으로 개발되어 패션 소재로 쓰이게 되며 천연 섬유의 방추가공, 방염가공, 방축가공법도 발전했었다.

이 신소재들은 젊은 음악인들이 먼저 차용하였다.¹⁷⁾ 그리고 영 파워를 형성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격변의 60년대(Swining Sixties)의 주역이었다.¹⁸⁾ 그들의 스타일은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상류층으로 흘러 들어가는 새로운 패션의

15) www.10000shop.co.kr/fashion/history/1960.htm

16) David Bond(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2000, p197

17) www.fashion-world.co.kr/libra/20c/1960.htm

18) 전선정 외 3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1, p190

흐름을 보여 주었다. 나중에는 파리의 꾸뛰르(couture) 디자이너들이 스트리트 스타일을 응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림8> 스페이스 룩



<그림9> 히피-제니스 조플린

1969년은 패션의 전환기로서 1940년대 후반부터 다양하게 변화를 거듭하던 라인(line)이나 룩(look)의 시대는 끝나고 개성의 시대로 접어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자신이 좋아하는 옷 길이로 미니, 미디, 맥시, 숏팬츠, 팬탈롱 등이 동시에 나타났다. 기본적인 실루엣은 허리를 잡지 않고 어깨 폭과 골반 넓이의 사각형이 길고 편안하게 드리워진 것이다. 디자이너들도 인간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 편안하고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을 만들어 내고 그 의복뿐만 아니라 구두, 핸드백, 안경, 모자, 스카프 등 액세서리에도 개성 있는 디자인을 하여 상업적으로 기업화시켰다.¹⁹⁾

그리하여 패션 트렌드가 강했던 그 시대에 유행의 첨단을 걸었던 상위그룹인 오프 꾸뛰르(haute couture)와 하위 그룹인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을 모아 정리해 보았다.²⁰⁾

19) www.10000shop.co.kr/fashion/history/1960.htm

20) 전선정 외 3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p190

1) 재키 룩(Jackie Look)

60년대 초반의 미국에서는 퍼스트레이디가 된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가 유행의 주인이었다. 재키라는 애명의 그녀는 젊은 30대의 매력을 맘껏 발산하며 전 세계의 유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의 부인이 짧은 소매의 외투를 입으면 수천 명의 여성들이 따라 했다고 한다. 그녀의 옷차림은 미국 디자이너 올레그 카시니(Oleg Cassini)가 맡았다. 그의 스타일은 프랑스적인 느낌이 가미된 미국식 디자인이었다.

그녀처럼 옷을 입고 그녀처럼 머리를 손질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녀의 의상, 미용, 헤어, 화장법은 그녀의 남편인 케네디 대통령이 실천했던 민주주의와 맞먹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특히 외국에서 더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켜 프랑스에서 재키는 대스타였다고 전해진다. 그녀 특유의 기품 있으면서도 감각적인 의상 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이 주목을 받았다. 재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생기발랄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60년대 초에 여성들에게 강하게 어필하였다. 재클린 케네디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젊고 활동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었고 결코 관습적인 딱딱한 옷차림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녀는 공식적인 저녁 파티에는 어깨를 시원하게 드러낸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시내에 다닐 때는 바지 정장을 입었다. 그녀는 장식 없는 깔끔한 단색조의 의상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한 프린세스 드레스나 시스 드레스에다가 혈령한 재킷을 즐겨 입었는데 이것이 큰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다 어린아이 모자 풍의 챙이 넓고 휘어져 올라간 모자나 그녀가 써서 인기를 끌게 된 필 박스(pill box)를 썼다. 재키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던 분홍색은 1962년에 그 해의 유행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필 박스라는 모자와 장갑을 애용한 재클린 케네디 영부인의 스타일을 많은 여성들이 모방했다. 그리고 크게 부풀려진 머리형태 때문에 모자는 거의 쓰지 않게 되었다. 깨끗한 피부를 기초로 진한 마스카라로 강조한 눈 화장, 황갈색(tawny)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건강하면서도 고상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10> 드레스를 입은 재키



<그림11> 재키룩

2) 모즈 룩(Mods Look)

영 패션의 시기로 지칭되는 1960년대는 독특한 청년문화가 형성되었는데 그들은 에드워드 시대의 우아한 복장 스타일과 풍습을 초근대적으로 훔쳐 내면서 사회에 초연한 듯한 태도를 나타내는 복장 스타일, 즉 모즈 룩을 유행시켰다.

1960년대 초반에 영국 런던의 카나비 스트리트(Carnaby Street)와 킹스 로드(Kings Road) 지역이 그 시작이다. 이른바 경쾌한 이태리나 프랑스의 모더니스트의 분위기가 영국의 십대들에게 차용되면서 생긴 스타일이다. 1950년대의 거칠고 반항적인 젊은이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 모즈는 기본적으로 자기애에 빠져 있는 요소가 강하다²¹⁾

모즈의 대부분은 런던 북쪽에 위치한 중산층 계층의 유대인 출신이었다. 그들은 맵시 있는 의상과 깔끔한 외모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모즈의 모습은 초기 비틀즈로 대표된다. 비틀즈는 함부르크 시절의 가죽 재킷과 티셔츠를 버리고 새로운 남성복 트렌드를 따라 스마트 룩을 입기 시작했다. 최고 판매량

21) 이연희, 이윤정, 이현숙, 진성모, 패션문화, 예학사, p99

을 기록한 ‘러브 미 두(Love Me Do)’ 앨범을 발표했던 1962년에는 에드워드 시대 스타일의 뿔뿔한 면 셔츠, 둥근 목선의 짧은 박스형 재킷과 커프스 없이



<그림12> 모즈 잡지



<그림13> 모즈 소녀들



<그림14> 모즈 차림의 배우



<그림15> 모즈 샵 ‘비바’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통이 좁아지는 바지로 구성된 카르맹 스타일의 모즈 룩을 입었다. 앞머리를 이마위로 드리운 단정한 헤어스타일에서부터 쿠반 힐의 첼시 부츠(chelsea boots)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의 외모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²²⁾

그리고 롤링스톤즈도 1960년대 초에는 모즈 록의 의상을 입기도 했었다. 그들은 몸에 타이트하게 달라붙고 옷깃이 좁다란 이탈리아인 수트가 기본 아이템이었다. 미 육군복 스타일의 파카를 입기도 하였다. 밝은 컬러가 기본이 되었으며 후기로 갈수록 더 밝고 산뜻해진다. 소재는 개량된 울과 면이 기본이었고 말쑥한 합섬도 인기가 있었다. 폭이 좁게 재단된 밝은 색의 바지와 라운드 티셔츠가 대표적인 아이템이었다.

남자들도 끝이 뾰족한 도시적인 구두를 신었다. 여성들은 짧은 치마라인의 스커트를 즐겨 입었으며 짙은 블레이저도 인기 아이템이었다. 여성들은 경쾌하고 짧은 험라인, 크레이프 나일론 페티코트, 짧은 블레이저 재킷, 솔기 없는 스타킹과 얇은 하이힐을 즐겨 신었다. 엘핀 헤어스타일, 창백한 얼굴에 짙은 마스카라를 사용하였고 유니섹스적인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다. 여자들은 약간 남자처럼 보이고 남자들은 오히려 여성화되어 중성적인 인물로 변했다. 러플이 달린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는 남성도 생긴 반면 여성들은 남성복을 본 딴 테일러드 수트나 청바지를 즐겨 입었다. 서부의 카우보이처럼 데님과 가죽옷을 입은 야성적인 느낌의 여자들도 보였다. 그리고 모즈족은 은근히 디테일에 심취했다. 겉모습은 비교적 단순해도 까다롭게 옷을 입었고 다분히 멋을 내었다.

모드족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사회에 초연한 듯 아주 세련되게 입었다. 영국의 사립학교의 고등학생의 분위기의 짙은 커트를 프랑스적인 감각으로 우아하게 연출하였다. 일종의 심대 댄디(dandy)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드 족은 겉멋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서너 번 옷을 갈아입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생활은 낮에는 서비스업계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쇼핑가에서 서성거리고 저녁에는 잠깐 쉬었다가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노는 게 일과였다. 그리고 이동 수단인 스쿠터를 애용하였으며 흑인음악을 좋아하였다. 모드족의 분위기는 나중에 유니섹스 모드로 연결된다.²³⁾

22) 밸러리 멘데스, 김정은 역, 20세기 패션, 경문사

3) 미니스커트와 마리퀀트(Miniskirt & Mary Quant)

1965년대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미니스커트가 출현하였다. 미니는 60년대 초 디자이너인 자크 들라에(Jacques Delahays)에 의해 첫선을 보였으며 65년 영국의 디자이너 마리 퀀트와 조안 휘르(Joan Huir)에 의해 애호를 받기 시작했다. 또한 미니스커트는 당시의 모델이었던 트위기(Twiggy)의 가냘픈 몸매와 천진난만한 모습에 단발머리(bob hair style)과 함께 선보였으며 당시 미니는 노동 계급과 중간 계급 출신의 여성들이 즐겨 입었는데 패션 전문가들은 전혀 상관없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패션으로 창조되기도 하였다. 1965년, 1966년을 통해 스커트는 점점 더 짧아지고 스커트 총 길이가 18인치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미니스커트가 대량생산되어 판매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패션 아이템은 디자이너 마리 퀀트가 발표한 미니 스커트였다.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감쪽한 모양의 이 치마는 몇 개월 내에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패션계 인사들의 시선을 런던으로 돌아오게 하였다.²⁴⁾



<그림16> 마리퀀트와 미니



<그림17> 마리퀀트

당시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캐치프레이즈에 의해 디자인에서 소형화가

23) 정경희, Street Fashion의 발생과 유행현상, 효성가톨릭대 대학원, 1996, p44

24) Francois Baudot,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 1999, p224

특징적이었다. 콰트는 미니스커트를 만들어 작은 것이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패션은 비교적 값이 싸야 하며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상류층 부인들이 아니라 대담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젊은 세대라고 생각했다.²⁵⁾

1960년대에 처음으로 젊은 디자이너가 젊은이의 옷을 디자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마리 콰트는 영 룩(young look)을 창조한 최초의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미니스커트는 무릎 위 5-6 인치의 미니에서부터 8-10인치의 마이크로 미니스커트(micro miniskirt)도 있었다.

모델 트위기(Twiggy)가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그녀는 작고 깡마른 체구의 감쪽한 스타일의 소녀 같은 분위기였다. 이 같은 트위기 타입은 젊은 여성들에게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선풍의 대상이 되었다.

콰트의 컬렉션은 발랄한 소녀적인 색채가 돋보였다. 소재로는 면, 합성섬유, 플라스틱 소재가 중심이었다. 여중생 같은 느낌의 소녀적인 스타일이 중심적이었다. 경쾌하고 귀여운 플라스틱 액세서리가 차용되었다.

앞가슴 노출이 없어지고 하이 네크라인에 찰막한 스커트, 평평한 구두, 짙은 눈화장을 한 심플한 형태로 일명 첼시 룩(Chelsea Look)이라고 불렸다.

그녀는 비탈 사순의 적극적인 협력자였다. 비탈 사순의 헤어는 기본적으로 짧은 스타일로서 마리 콰트의 영 패션과 접목되었다. 거의 사순은 유니섹스 분위기의 헤어스타일로 마리 콰트의 패션과 스타일을 맞추었다.



<그림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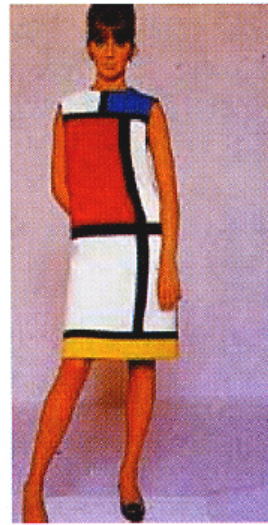
미니스커트의 출현은 20세기 복식사상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 질서와 사회적 권위에 도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난 전위적인 패션이었으며 육체의 노출을 통한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25) 전선정 외 3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1, p190

4) 팝아트, 옵아트 룩(Pop Art & Op Art Look)



<그림19> 이브 생로랑의 팝아트



<그림20> 생로랑의 몬드리안 룩

팝아트 패션은 팝아트 작품을 패션 디자인에 활용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브 생 로랑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매스컴에 의해 파리 꾸뛰르 계의 어린 왕자라고 불리었다.²⁶⁾

처음에 그는 크리스티앙 디오르에서 디자인 조수 생활 하다가 1957년 디오르가 갑작스럽게 죽자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61년에 자기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으며 꾸뛰르에 기초하여 고급 기성복을 디자인하였다.

그는 1965년 봄 컬렉션에 이른바 몬드리안 룩(Mondrian Look)을 발표하여 현대적인 추상 회화를 패션에 도입했다. 그 다음으로 팝아트 컬렉션을 발표했으며 앤디 워홀의 팝아트를 드레스에 활용하였다. 그것은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이미지가 담긴 아주 심플한 원피스가 기본이었다. 그는 한동안 유니섹스 모드를 추구하였고 사파리 재킷과 바지가 포함된 판탈롱 수트를 내놓았다.

1966년에 이브 생 로랑은 스모킹 드레스 수트를 발표하였고 세느 강 좌안에 있는 리브 고쉬(Rive Gauche) 라는 전문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다. 거기서 그

26) Francois Baudot,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 1999, p.192

는 기성복뿐만 아니라 향수, 화장품, 액세서리, 구두, 모피들을 함께 선보였다.



<그림21> 움아트 룩



<그림22> 생 로랑의 팝아트 룩

그리고 피에르 카르댕도 팝아트, 움아트적인 영감으로 작업을 많이 했다. 이 태리게인 그는 일찍이 파리로 와서 디자이너 매장인 빠깁(Paquin)에도 근무한 적이 있고, 크리스티앙 디오르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배웠다. 그는 커팅에 뛰어났고 코트와 수트 디자인이 돋보였다.²⁷⁾ 그의 디자인은 짧은 헴라인처럼 모즈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었다.

그는 미래적인 의상을 창조하기 위해 모즈를 도입했다. 1966년에 그는 꾸레주의 미래주의 컨셉을 디자인에 도입하여 남성과 여성을 위한 미래파 의상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는 순수 패션의 영역을 넘어서 가구에서부터 호텔, 자기, 유리 제품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영역을 다각화하였다. 그는 건축적인 모티브를 이용하여 옷의 본질을 몸을 가리는 것으로 축소화하였다.

피에르 카르댕은 이른바 뉴웨이브 디자이너이자 비즈니스맨이었다.

그는 나중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패션 디자인 라이선스 사업을 시작하

27) www.fashion-world.co.kr/libra/20c/1960.htm

여 성공을 거둔다. 1980년대 초에 그는 전 세계에 걸쳐 540여 개의 라이선스 사업체를 거느린 주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브랜드의 여러 라이선스 업체들이 등장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림23> 피에르 카르맹의 패션



<그림24> 카르맹의 우주룩

5) 우주 패션(Space Look)

1960년대 제기된 미국과 소련간의 우주 개발 열기에 자극되어 그 분위기가 패션디자인으로 응용되었다.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처음 비행 하였고 1962년에는 미국인 존 글렌 (John Glenn)이 우주 궤도를 비행하는 데 성공하였고 1963년에는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가 생기는 등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시스루 의상, 긴 부츠, 바디수트(캣수트), 레깅스 등 우주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는 인기가 있었다. 제인 폰다(Jane Fonda)는 ‘바르바텔라’라는 우주 영화에 출연하였다. 그 영화 속의 배우들은 PVC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미니멀한 의상을 입었다. TV드라마 ‘스타트렉’과 스탠리 큐브릭(Stanley Cubrick)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도 미래적인 의상이 나왔다.²⁸⁾ 그 뒤로 하이패



<그림25> 꾸레주의 우주 룩

의 오프꾸뛰르를 자극하여 함께 변화에 동참하게 했다.

1965년에 흰색으로 꾸며진 그의 컬렉션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미니스 커트를 본격적으로 받아 들여 미래적인 디자인을 연출하였다. 또한 그는 러시아 구성주의 미술이나 바우하우스의 개념을 패션에 응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폴로호의 달나라 여행에 자극되어 우주 비행사 룩을 발표하였으며 우주적인 분위기가 표현된 의상의 기본 컬러는 흰색이나 은색, 투명 소재였다. 은색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색 중의 하나였다. 당시 새로운 빌딩은 은색을 내는 알루미늄 금속으로 입혀진 경우가 많았다.

꾸레주는 첨단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의 선봉에 섰다. 옷의 소재로는 합성 섬유, 플라스틱, 아크릴, 금속 등이 활용되었다. 기하학적인 모양이 돋보였으며 단순화되었다.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드레스, 짧은 헴 라인의 심플한 드레스에 특이한 머리 장식과 짧은 부츠로 장식한 스페이스 룩을 창조해 인기를 얻었다. 꾸레주가 발표한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는 짧은 가발, 길이 낮은 긴 부츠, 날씬한 실루엣의 원피스, 판탈롱 등 이른바 소녀풍의 디자인이었다. 바지인 판탈롱을 과감하게 여성들의 외출용 옷으로 수용한 것도 그였다.

션에서도 이러한 스페이스 룩이 응용되었다.

우주 패션의 대명사로는 꾸레주를 거론할 수 있는데 그는 일종의 건축 엔지니어와 같은 패션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²⁹⁾ 그는 처음에는 발렌시아가 밑에서 디자인을 배웠다. 꾸레주의 혁명은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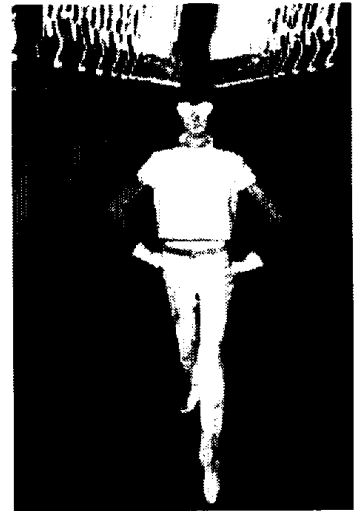
28) Yvonne Connikie,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Batsford, 1990, p44

29) Francois Baudot,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 1999, p196

그의 디자인이야말로 여성의 이미지를 살롱과 같은 실내에서 거리라는 야외로 내보낸 파리 오프꾸뛰르의 전위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코 라반도 첨단적인 소재로 우주적인 분위기의 의상을 선보였다.

그는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출신으로 1966년도에 그의 가게를 파리에 오픈 하였다. 그는 금속, 알루미늄, 셀로판지, 플라스틱 등 특이한 소재를 대담하게 활용하였고 종이, 셀로판지, 비닐 등 좀처럼 옷에 활용되지 않았던 값싼 소재를 옷에 사용하였다. 색상으로는 은색, 금색, 투명색, 청동색, 황동색이 쓰였고 옷 모양은 중세적인 분위기와 미래 의상이 결합된 분위기였으며 과감한 액세서리로 치장되는 경우가 많았다.³⁰⁾ 1967년에는 처음으로 흑인 모델을 기용하기도 하였다.



<그림26> 꾸레주의 패션

웅가로는 남불의 엑상프로방스 출신으로서 이태리 이민의 아들이었다. 꾸레주와 함께 발렌시아가 아래서 6년 동안 패션 전문가로서 수습 기간을 마친 웅가로는 1964년에 꾸레주와 합류하여 1년을 보냈으며 그후 재능있는 직물 디자이너인 소냐 뎀(Sonja Knapp)과 함께 독립하였다. 그는 1965년에 처음으로 소규모 컬렉션을 개최하여 꾸레주와 함께 우주 시대의 디자이너로서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녹색 바탕에 붉은 색, 노랑 바탕에 보라색, 체크 무늬 위에 점무늬, 꽃무늬 위에 줄무늬 등 모든 색조, 무늬, 직물의 배합은 그 이후 10년 동안 기성복에 상투적인 수단이 되었다.

30) Francois Baudot,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 1999, p198



<그림27> 파코 라반의 패션



<그림28> 웅가로의 패션

6) 히피 패션(Hippie Fashion)

1950년대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미국사회를 거부하는 작가와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된 언더그라운드 운동이 배경이 되었다. 이 흐름은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형성되었다.

히피의 전신인 비트족들은 중산층의 풍부함을 의심하면서 현실을 떠나 자연 속으로 숨어들었다. 직업을 버리고 재산, 애정, 자녀를 공유하며 자급자족을 하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다. 자연회귀본능에 따라서 순수한 자연 생활로 돌아갔다. 이른바 도태의 문화를 스스로 추구한다. 그들에게는 재즈와 블루스 같은 음악이 애호 되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일종의 예술가였다고 할 수 있는 케루악(Kerouac), 몽크(Monk), 콜트레인(Coltrane), 긴즈버그(Ginsberg) 등이 해당된다. 피터 에브레트(Peter Everate)는 비트 족의 스타일을 두고 프랑스풍의 보헤미안, 영국풍의 지식인, 미국풍의 실업자의 조합이 비트 족 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림29> 히피가족



<그림30> 히피들

비트족은 히피족의 선구자였고 1960년대 중반에는 본격적으로 히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물질적 허영을 조소하고 의복에는 관심이 없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 그들은 중고 옷을 선호하였으며 고물상에서 옷을 구입했다. 이른바 안티 모드(anti-mode)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의상은 자연스러운 색상이 기본적이었으며 모노톤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자연 소재인 면, 울이 보통이었으며 낡은 군용 점퍼나 군화가 선호되었고 풍성한 셔츠나 큰 외투를 걸치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 대중매체에 의해 이들의 비트 패션이 전파된다. 주로 검정색을 선호하였으며 폴로 네크라인의 스웨터나 박스형 가죽재킷을 입고 다녔다. 통이 좁은 진 바지에 종아리까지 오는 구두를 신었다. 남성은 수염이 필수였다. 여성들은 짧은 치마에 검정 스타킹, 그리고 더플코트가 선호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미국 서부에서 태동했으며 50년대에 발생한 비트 족이 그 모태가 된다.³¹⁾ 미국사회가 불평등하고 억압적이며 비도덕적이라 비난하고 기

31) 이연희, 이윤정, 이현숙, 권성모, 패션문화, 예학사, p107

존체제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히피들이 집단을 이루게 된다. 이렇듯 비폭력적인 문화혁명을 추구했던 이들이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67년 여름 샌프란시스코의 하이트 애쉬베리(Height Ashbury)의 골든게이트 파크에서 열린 휴먼-비-인(Human-Be-In) 행사였다. 약 1만여 명이 모인 이 집회에서는 머리에 꽃을 꽂은 히피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애쉬베리는 히피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²⁾

6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이 스타일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대중문화 예술가들이 이 스타일에 심취하게 했다. 비틀즈도 히피 스타일에 젖었던 때가 있었다.



<그림31> 히피 차림의 비틀즈

히피들은 격식을 갖추지 않고 덜 차려 입은 스타일로 볼 수 있으며 기본 컨셉은 에스닉(ethnic)과 노스탈지아(nostalgia)라고 할 수 있다. 물질문명, 전쟁,

32) Ted Polmehaus ; Street Style, Thames & Husdon, 1994, pp64-65

환경오염에 대한 저항으로서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 낡은 군복, 국기 의상, 중고 의상으로서 나타내었고 전통 기성세대에 저항하여 블루진, 유니섹스 웨어, 여성의 가슴팍 노출, 남자의 긴 머리, 너저분한 외모 등으로 표현하였다. 서구 중심의 도시화에 반발하여 제 3 세계의 민속복, 농부의 작업복, 집시 의상 등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낡고 빛이 바랜 듯한 색상의 옷차림이 선호되었으며 그 밖에도 시간과 공간,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기도 했고 민속 복식을 이용하기도 했다.³³⁾

그들은 손뜨개 등 수작업으로 만든 옷을 즐겨 입었다. 그리고 꽃무늬 프린트와 장식이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었다. 인디언 복식도 차용되었다. 구슬과 프린지가 달린 가죽 의류가 인기가 있었으며 깃털 머리 장식, 머리 밴드, 나무 구슬 목걸이 등도 사용되었고, 판초, 스모크, 자수 블라우스 등 남미 인디언 스타일도 유행하였다. 그리고 빙 둘러 얹아 마리아나를 피우며 인디언 흉내를 내기도 하였다.³⁴⁾

동양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힌두교에 대한 탐구가 결들여졌다. 힌두교식 의상을 차용한 사람도 있었다. 남자들은 대개 덥수룩한 수염을 길렀고 자연과 자유를 상징하는 긴 머리 스타일이었다.

자연적이면서도 민속적인 색채가 각광을 받았으며 자연 친화적인 소재가 환영 받았는데 거칠고 가공되지 않은 면 소재, 린넨 소재가 활용되었으며 평범한 나일론 소재도 쓰였다. 짚, 돌, 조개껍질 등 자연 소재도 액세서리 등으로 쓰였다.³⁵⁾

옷을 풀어 헤쳐 껴입는 스타일이 히피 룩의 기본이다. 이처럼 겹쳐 입는 스타일은 나중에 레이어드 룩으로 꾸뛰르 패션에서 응용되기도 하였다.

보그(VOGUE) 지는 1968년의 패션 트렌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67년에 유행했던 트위드와 기하학적이고 기능적인 우주복 스타일은 사라지고

33) 정경희, Street Fashion의 발생과 유행현상, 효성가톨릭대 대학원, 1996, p49

34)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고문사, p392

35) Nigel Cawthorne, Sixties Source Book, Chartwell Books Inc., 1989, p61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른바 로맨틱 룩이 출현한 것이다.

로맨틱한 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 방법은 플라워 파워 히피 스타일로 인디언들의 가죽 프린지, 머리밴드와 액세서리를 단 누더기 같은 스타일이고 헤어는 손질하지 않은 듯 풀어헤친 스타일이다.

두 번째 방법은 민속풍 스타일로서 우크라이나풍의 웨딩드레스, 인도 풍의 바지, 양가죽에 금박이 놓인 아프가니스탄 풍의 코트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로맨틱한 스타일로 러플이 달린 관초 의상 등 멕시코 분위기의 히피 스타일이다.

화려한 꽃무늬 소재는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복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행하였고, 바디 페인팅 기법으로 얼굴이나 몸에 꽃무늬를 그리기도 하였다.

히피들이 무작위하게 옷을 걸쳐 입었던 스타일에 대해 하이패션에서는 레이어드 룩으로 표현되었다. 히피들은 끈이 풀린 청바지, 에스닉 경향의 화려하면서도 경박한 집시 스타일의 옷에 심취하기도 했다.

히피의 패션 스타일이 곧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매장에서든 히피처럼 꾸밀 수 있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히피의 주요 상징이었던 꽃무늬가 청바지, 티셔츠, 부츠, 핸드백, 선글라스 등을 장식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파리의 디자이너들도 히피풍의 의상을 발표하였다. 특히 겐조가 대표적이었는데 그는 해적풍의 느낌이 나는 볼륨이 강조된 옷을 히피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이키델릭이란 마음에 환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의 은어이며 1960년대 말에 미국과 서구의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하였다.

미국 서부출신으로 반전 분위기의 노래로 유명해진 그룹 도어즈(Doors)도 사이키델릭 문화에 심취하였다.

그들은 기계적 사회의 합리성, 획일성을 거부하고 완전히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에서 개인의 본능과 잠재력을 일깨워 진정한 자아중심의 생활과 쾌락적인 생활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마약 복용도 서슴지 않았고 성적으로 무척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³⁶⁾

사이키델릭은 관능적이면서 불안정하며 심적인 황홀감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야광과 형광에 가까운 밝고 선명한 컬러의 극단적인 대비가 특징적이었고



<그림32> 사이키델릭 패션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가 사용된 직물 패턴의 기본 요소이다. 현란한 색감으로 마치 마약을 먹은 듯한 아찔한 기분에 젖어 들 수 있었다. 또한 밝고 대담한 보라색과 오렌지색 벨벳으로 만든 남성용 바지가 인기가 있었다.³⁷⁾

고대 인도의 문양이나 이미지가 차용되기도 하였고 아주 특이한 모양을 추구하는 이가 많았다. 이 같은 사이키델릭한 패턴과 컬러는 매혹적으로 여겨져 이른바 유니폼처럼 유행하기도 하였다

7) 유니섹스 모드(Unisex Mode)

1967년 무렵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젊은층이 중심으로 수용하였으나 나중에는 전 사회적인 스타일이 되었다. 이른바 체육복 같은 차림이 유니섹스 룩의 원조라고 볼 수 있으며 모즈 풍이 유행할 때 이미 유니섹스적인 요소가 있었다. 나중에 피에르 카르맹 등 파리의 디자이너들이 적극 수용하였고 남녀가 구분 안 되는 비슷한 옷차림의 중성적인 스타일

36) 정경희, Street Fashion의 발생과 유행현상, 효성가톨릭대 대학원, 1996, p15

37) 이연희, 이윤정, 이현숙, 진성모, 패션문화, 예학사, p110

이다. 합성섬유와 가죽, 면 소재가 선호되었으며 특히 다양하게 개발된 합성섬유가 주 아이템이었다. 터틀넥 폴오버, 청바지, 로빈훗 가죽 재킷, 미국서부지방의 가죽 카우보이 바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청바지인 데님 진은 유니섹스적인 요소를 강하게 응집하고 있는 아이템으로서 무계급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입기 시작하였다.³⁸⁾

이브 생 로랑은 남성의 수트와 유사한 여성용 팬츠 수트를 파리 컬렉션에서 발표하면서 일종의 유니섹스 의상을 제안하였다. 수트를 입고 조끼와 블라우스를 입고 넥타이를 맨 모습에서 남녀의 구별이 애매모호해졌다.³⁹⁾



<그림33> 이브생 로랑의 유니섹스 슈트



<그림34> 유니섹스 모드의 세어

38) 이연희, 이윤정, 이현숙, 진성모, 패션문화, 예학사, p152

39) www.1000shop.co.kr/fashion/history/1960.htm

3. 1960년대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관한 고찰

현대에 들어오면서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고자 하는 미적 연출 행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패션의 한 분야인 헤어스타일의 연출은 다른 어느 것보다 시간과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고 빠른 변화가 용이하며 자신의 다양한 개성 연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35> 60년대 다양한 헤어스타일

196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여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용사에 의해 샴푸를 하고 그 머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1차 대전 후 1920년대에도 커트 스타일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은 그레쥬에이션 보브, 지오메트릭 커트 등이 등장하였다. 짧고 둥근 커트, 베이직 레이어, 롱 스트레이트 원렝스가 유행하였다. 헤어가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연예인을 모방하는 영향력 있는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헤어스타일도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비틀즈, 트위키 등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고 특히 커트 부분의 비달 사순은 아름다운 각도의 커트로 많은 여성들에게 커트의 아름다움을 인식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 그 당시는 긴 머리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기에 커트를 한 경우 집에 못 들어가고 울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세태의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1960년대는 가장 긴 기장의 머리에서부터 가장 짧은 기장의 머리 스타일이 공유된 10년이였다. 스타일도 다양하여 젊은 세대들의 개성을 맘껏 발휘하는 변화의 시기였다.



<그림36> 업스타일

1) 올림머리(Up Style)

패션을 의식하는 여성들은 더 높고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채택하였다. 속을 부풀려 올린 머리 스타일은 1960년에 걸쳐서 유행하였다. 여성들은 머리를 뒤로 빗어 넘기기도 하였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올린 머리였다. 올린 머리가 가끔 가발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였다.

(1) 부팡(Bouffant)

부팡 스타일의 원조는 14세기 유럽에서 출현하였으나 1958년부터 헤어스타일이 확립되었다. 영어로는 ‘풀바디드(full-bodied)’라고도 부르는데 머리카락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스타일이 기본으로 부풀림은 머리의 길이에 상관없이 긴 머리카나 짧은 머리에다 사용되었다. 모발 쪽을 모두 세워서 올리는 모양이다. 이 스타일은 최근에 페이지 보이 헤어스타일을 합쳐서 발전시킨 부드러운 머리 스타일이다. 부팡 스타일의 모양은 길이가 20-25센티미터 정도로 길쭉하며 양쪽으로 부풀어 오르고 락커 칠을 한 두툼한 페이지 보이 머리 모양이다.

1960년대 초에 어머니들과 누이들에게 대중적인 부팡은 미국 틴에이지들의 전유물이었다. 그 중에서 머리를 거대한 버섯 모양, 방울 풍선 모양, 땅콩 모양으로 극단의 스타일로 이르게 되었다. 그 모양은 18세기 프랑스 귀족에 의해 선호되었던 웅장한 스타일과 비슷했고 똑같이 위생적 청결 문제를 경험하게 했다. 그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주 동안 그들의 귀찮은 부팡을 빗질하지 않거나 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962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의 캔톤에서는 한 여학생이 몇 주 동안 그녀의 머리를 돌보지 않아서 학급 동료들이 그녀의 목에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었다. 학교 담당 의사에 의해 철저한 검사를 해 보니 바퀴벌레 무리들이 거대한 부팡의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여 머리 속에 기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⁰⁾

40) Dylan Jones ; Haircults, Thames & Hudson, 1990

이 머리형은 소피아 로렌, 영국의 마거리트 왕녀도 즐겨 하던 스타일이었다.

(2) 비하이프(Beehive)

머리의 높이가 더 높아지고 풍성한 느낌의 스타일이다. 머리를 빗어 올려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부분 가발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머리결과 반대로 빗질 해서 부풀리는 백코밍 기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크게 부풀려진 머리형태 때문에 모자는 거의 쓰지 않게 되었다.

이 스타일은 60년대 초에 엄청난 인기를 누린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재클린이 즐겨 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⁴¹⁾ 재키라는 애명의 그녀는 젊은 30대의 매력을 맘껏 발산하며 전 세계의 유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의 부인이 짧은 소매의 외투를 입으면 수천 명의 여성들이 따라 했다고 한다. 그녀처럼 옷을 입고 그녀처럼 머리를 손질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녀의 의상, 미용, 헤어, 화장법은 그녀의 남편인 케네디 대통령이 실천했던 민주주의와 맞먹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특히 외국에서 더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재키는 대스타였다고 전해진다. 그녀 특유의 기품 있으면서도 감각적인 의상 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이 주목을 받았다.

머리를 적당히 커트하고 나서 살짝 부풀린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다.

부풀림은 머리의 길이와 상관없이 긴 머리에도 짧은 머리에도 사용되었다. 긴 머리를 뒤로 빗어 넘긴 것을 벌집 모양과 같다고 해서 비하이프(beehive)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 스타일은 절제된 듯 하면서도 감각적으로 보인다.⁴²⁾

재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생기발랄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60년대 초에 여성들에게 강하게 어필하였다. 이 스타일을 하려면 엉킨 더미처럼 머리를 만들고 위로 살짝 올려서 벌집모양처럼 만들었다. 긴 머리카락을 백코밍(back-combing)해서 위로 올려 뒤로 넘기는 테크닉이다. 그리고 헤어스프레이

41) 정임숙, 20세기 서구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복식 변천에 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2002, p35

42)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1, p192

를 뿌려 머리 모양을 고정시켜 마무리했다.



<그림37> 공식석상에서의 재키 헤어



<그림38> 재키의 비하이프

후기로 갈수록 입체감이 있는 스타일이 강조되었다. 커다란 웨이브를 옆에 부착하고 정수리 부분은 평평하게 흘리거나 뒤로 분리하여 색다른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되었다. 타이트하게 처리된 쇼트 머리 정상 부위에 도넛형의 가발을 얹거나 백콤을 넣어 모발을 부풀리게 했으며 얇은 그물을 씌워 머리색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염색과 탈색 기술이 진보되어 꽤 인기가 있었다. 염색으로 미묘한 색깔을 낼 수 있었으며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 들여졌다.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머리를 고정하게 되었다. 밝은 블론드가 당시에 선호 색상이었다.

필 박스(pill-box) 스타일의 큼지막한 모자와 장갑을 애용한 재클린 케네디 영부인의 스타일을 많은 여성들이 모방했다. 필 박스형 모자는 깊고 여유 있게 통이 넓은 상자형태의 모자로서 높이가 있는 헤어를 담을 수 있었다.

깨끗한 피부를 기초로 진한 마스크라로 강조한 눈화장, 황갈색(tawny)의 립

스틱을 사용하여 건강하면서도 고상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⁴³⁾

이 스타일은 나중에 곱슬곱슬한 별집 모양의 B-52 스타일로 변화되기도 했다. 이 변형된 스타일은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B-52 라는 폭격기로부터 이름을 따왔으며 다이내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39> 비하이브



<그림40> 슈프림즈의 비하이브



<그림41> b-52 헤어

(3) 시농(Chignon)

시농 스타일은 크리스티앙 디오르 스타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고 이 스타일은 1953년을 전후로 미국에서 가장 대중화되었던 야회용 스타일이다.

사이드 파트로 가르마를 타고 옆에서부터 모발을 꼬이게 하여 변형된 뒷부분을 프렌치 트위스트로 말거나 장식핀을 사용하였으며 남겨진 모발은 웨이브를 살리면서 머리 정상에 장식했다. 또 세 가닥으로 땀은 모발 다발을 원으로 쌓아 올려 정수리에 장식한 업스타일도 선보였다. 가장 단순한 프렌치 트위스트 스타일이 파리에서 유행이었다. 보다 가벼운 스타일은 정수리에 도너츠 형의 부분 가발을 사용하고 머리를 부풀게 하였는데 여기에 모자를 이용하여 가볍게 장식하기도 하였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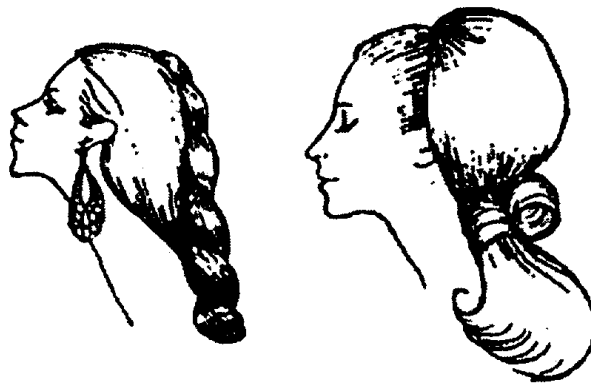
43)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1, p197

오드리 헵번이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에서 시뮬 스타일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 모습은 지방시의 절제된 의상과 조화를 이루어 우아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다.

비달 사순의 시뮬의 하나인 사각형 컬(square curl)은 사각형의 웨이브를 단단하게 고정시킨 기하학적 시뮬으로 뒷머리 혹은 목덜미에 있는 컬을 만들 때 설탕물에 적셔서 발사 나무 조각으로 고정시켜 사용하였다. 이 스타일은 파코 라반의 이브닝 의상에 적용한 머리 스타일이었다. 이 스타일은 조각의 묘미를 살려 얼굴선과 함께 조화를 이루었고 브론티 룩(Bronter Look)을 탄생시켰다.

(4) 타이거 테일(Tiger Tail)

타이거 테일(tiger-tail)은 머리를 호랑이 꼬리처럼 만든 스타일을 말하는데 1967년경부터 저녁 파티나 밤무대에서 볼 수 있었던 재미있는 테일 룩의 하나이다. 테일의 중간까지 머리 다발을 얹은 헤어피스로 매슈 대신에 말아서 호랑이 꼬리 모양으로 연출한 것으로 헤어피스를 모발 다발에 엮거나 헤어밴드 풍으로 감아서 모양을 낸 머리형이며 지속적으로 유행하였다.



<그림42> 타이거 테일

44) 김춘득, 동서양 미용문화사, 현문사, 2002, p230

2) 세팅 / 아이롱(Setting / Ironing)

(1) 양배추 머리(Bubble Style)



<그림43> 마릴린몬로의 버블스타일



<그림44> 양배추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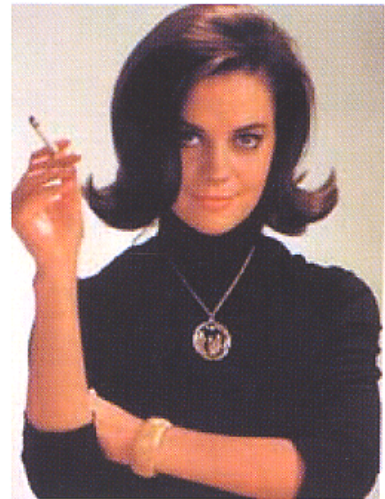
양배추 머리형이 1960년대에 유행하였다. 끝머리를 둥글린 배추 모양의 머리로 시들은 양배추를 모방하여 만든 스타일이다. 머리를 부풀려 얼굴을 둘러싸게 고안한 이 머리형은 마치 시들은 양배추를 연상하게 한다. 양배추 모양의 머리는 16세기에 유명했던 사람들(카트린느 드 메디치와 마리 스튜어트)의 머리에 영감을 받아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 부드러운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버블 스타일로도 알려져 있는데 머리카락을 약 7센티미터 정도의 길이로 말아서 둥글면서 솜털같은 모양으로 만든 스타일로 마릴린 몬로가 이 스타일의 전형이었다.

그 중에서도 지배적인 머리형은 ‘미니 파도’라는 것으로 퍼머넌트(permanent)를 굵게 하여 계절에 따라 변화시킨 것이다. 짧은 머리는 프랑스 이외에도 유럽의 몇몇 나라와 동부 지역 나라들과 터키와 미국 등에 계속된다.⁴⁵⁾

45) Beauty Life 2002.4., 정현진 교수의 ‘현대 이야기 III’ 중

(2) 바깥 말음(Indentation)

소두마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바깥 말음이라는 스타일로 1962년경부터 국제적으로 유행한 젊고 역동적인 헤어스타일이다. 바깥 말음이란 모발 끝을 바깥쪽으로 살짝 말아 올린 것을 말하는데 세미롱 보브(semi-long bob)라고 할 수 있다. 페이지보이 스타일을 바깥 말음이라 하고 플립이란 ‘가볍게 탁 친다’라는 말의 뜻이며 헤어스타일 용어에서는 경쾌하게 모발 끝이 바깥쪽으로 감겨 있는 바깥 말음 스타일의 세미롱 보브를 말한다. 부팡 플립 스타일로 모발 끝을 겹 말음한 스타일도 있으며 역동적이며 젊은 형태로 1962년경부터 나이 든 여성에게 하이 패션적인 감각의 젊은 머리형으로 유행해왔다. 이 당시 여성들은 여전히 아이롱으로 컬을 아서 생머리를 풀어지지 않게 고정하였으며 딱딱한 정형적인 모습이 시대상을 대변하듯 경직되어 보였다. 이러한 스타일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단발형으로 자른다면 플립처럼 움직임이 있는 단발형의 안 말음과 겹 말음을 선호하여 헤어스타일에서 개성을 찾아 치장하였다.⁴⁶⁾



<그림45> 나탈리우드의
소두마끼

(3) 스트레이트(Straight)

인디언 머리처럼 머릿결이 곧은 머리가 유행하면서 스트레이트 펌이 등장하였다. 이 헤어스타일을 하면 단정해 보였고 1960년대 미국 여학생들이 선호한 스타일이었다. 심지어 여학생 중에는 머리를 평평하게 펴기 위하여 옷을 다리는 다리미를 사용했으며 머리카락을 두 개의 갈



<그림46> 스트레이트

46) 김춘득, 동서양 미용문화사, 현문사, 2002, p229, p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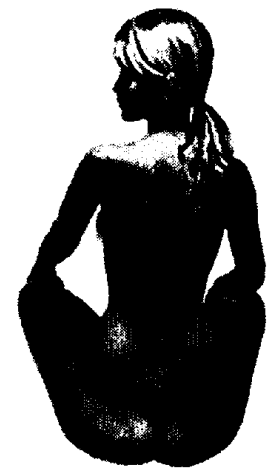
종종 높은 표시가 나서 머리를 자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⁴⁷⁾

퍼머넌트 약은 직모를 가진 사람이 웨이브 머리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곱슬머리를 가진 사람도 직모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트레이트 머리에 약간의 볼륨을 준 롤 스트레이트(roll straight)도 나타났다.⁴⁸⁾

(4) 포니테일(Pony Tail)

1967년경부터 유행한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은 이른바 망아지 꼬리 같은 머리 모양이다. 이것은 머리의 뒤를 바짝 당겨 묶고 양어깨 사이에 늘어뜨리는 모양이었다. 깨끗하고 참신해 보이는 느낌을 더욱 살리기 위해 말꼬리 모양의 머리끝에 리본을 묶기도 하였다.

이 머리는 처음에는 미국의 컨트리 가수들이 주로 하였으나 점점 인기를 끌어 미국 전역, 세계로 유행이 확산되었다. 영국의 테드보이 족 소녀들이 차용하였으며 영화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포니 테일을 하기도 하였다. 화가 피카소가 포니테일을 그림에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47> 포니테일

3) 커트(Cutting)

처음 모즈 족들은 백콤 스타일을 선호하다가 나중에는 짝 찢진 스트레이트 머리를 선호하였다. 기하학적 커트들은 스페이스 룩 풍의 의상과 어울려 한결 돋보였으며 여성에게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주어 점점 그 커트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

런던을 세계 패션의 요충지로 올려놓은 만큼 유명한 스윙잉 식스티즈

47) Jones, D., Haircults, Thames & Hudson, 1990, p41

48) 안현경, 20세기 서구 여성의 머리 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교육대학원, 1995

(Swinging Sixties)는 비달 사순의 직업 생활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다. 당시 런던은 모든 분야에서 스윙잉 식스티의 흐름으로 가득 차있었다. 그리고 비달 사순은 그러한 유행에 맞추어 헤어 커트를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가발을 많이 사용하여 커트를 하였다. 가발은 워낙 비싸 신중하게 다루면서 커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커트 테크닉이 발달하게 되었다.

(1) 모즈 헤어(Mods Hair)

모즈는 본래 모더니스트들로서 1960년대 초에 영국 런던 북쪽에 위치한 중산층 계층에서 출현하였다. 그들은 의상과 샤프한 외모에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으며 의상과 세부적인 장식품에 극도로 집착하여 깔끔하게 재단된 바지와 셔츠를 좋아하였다. 그들은 오른쪽에 슬릿을 넣어준 정확한 재단의 재킷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만족적이었다. 처음의 모즈는 십대의 멋쟁이들이었고 그들의 유럽 대륙풍의 정장은 1950년대의 맵시 없는 크레이프나 드레이프진 의상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이것은 남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여자 친구는 모즈 남성들의 중요 목록에서 의복, 헤어, 약물, 스쿠터에 이어 다섯 번째로 중요한 대상이었다. 모즈는 자기 도취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들은 흑인 음악을 좋아했고 이태리안 스쿠터와 프랑스의 헤어 커트를 선호하였다.

‘In Mods!’(1979)는 이러한 주제에서 가장 권위있는 책으로서 리처드 반즈(Richard Barnes)가 썼으며 거기에는 ‘이탈리안 헤어 커트는 1960년 경에 왔으며, 모든 헤어드레서들이 이탈리안 헤어 커트로 시술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남성들의 머리를 스타일 있게 꾸미기보다 심플하게 커트하여 주었다. 가르마 비율이 6:2가 되는 ‘페리 코모(Perry Como) 커트는 기존의 것과 차이가 있으며 마른 상태의 헤어스타일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머리에 오일이나 포마드를 바르지 않았으며 그 당시 헤어 드레서가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빗어주지 않으면 스타일이 제대로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나서 더 짧은 길이의 프렌치 칼리지 보이

(French college boy) 커트가 나왔고 그것은 2인치 정도의 크루 커트(crew cut)이며 프렌치 크루라고 하기도 하고 이는 좀 더 높은 분할선을 가진 칼리지 커트다. 하지만 독창적인 모즈 헤어 커트는 백콤한 머리이며 머리의 분할선 높이의 반 정도의 짧은 길이이며 머리 뒷부분을 볼록하게 높여 주는 것이다. 리처드 반즈는 ‘백콤할 때 쓰는 특별한 버블 콤(bubble comb)은 기본적인 미용 도구였고 남자들은 머리를 그 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머리카락은 빗질하고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여 2-3인치 정도 올려 세울 수 있었다. 가수 로드 스튜어트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멋진 백콤 머리를 한 사람이었다. 그는 머리가 6인치 정도의 길이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후두부 앞쪽에서 세웠다.’ 라고 했다.

모즈 소녀들은 부풀렸던 머리를 짝 펴진 머리로 바꾸었다.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은 앞가르마에서 턱까지 오는 길이에 매우 무거워 보이는 앞머리의 형태였다. 당시 유명한 모즈 걸은 영국의 TV 팝 사회자였던 캐시 맥고운(Cathy McGowan)이었는데 그녀는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스타일이었다고 한다.⁴⁹⁾



<그림48> 모즈 그룹 ‘후’



<그림49> 모즈 소녀들

49) Jones, Dylan, Haircuts, Thames & Hudson, 1998, p50

머리 색깔은 자연스러운 색이 중심이었으나 은근히 밝은 갈색이나 블론드가 돋보였다. 머리 양쪽 위를 빗으로 살짝 감아 부풀려 얹어 정수리가 푸짐해 보이게 하는 기술이 중심적이었다. 그것을 백콤(back-comb) 스타일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해서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 유명했던 팝 그룹 후(The Who)의 헤어스타일이 모즈 룩의 대변자였고 독창적인 모드 클론 밴드인 후는 더 헤어(The Hair)라고 불리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즈 스타일의 중요한 것들이었다.⁵⁰⁾ 모즈족은 일주일에 6일은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하루는 쉬는데 그 때 집에서 머리를 감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모즈 헤어는 196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유니섹스 헤어로 발전하게 된다. 남녀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유니섹스 룩이 1960년대 중반부터 넓게 퍼져 나갔다. 남자들도 화장이 외모를 꾸미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곱게 머리를 빗어 윤이 나는 머릿결을 지닌 남성들도 등장했다. 남녀 구분 없이 짙막하고 경쾌해 보이는 단발머리 스타일이 기본이 되었다.

(2) 비틀즈 헤어(The Mop Top)

1960년대 초에 등장한 비틀즈는 말쑥한 모즈 스타일 차림이었다.

헤어는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였던 보브(bob) 스타일이었다. 머리가 귀 위쪽까지 내려 오고 이마와 목덜미를 덮는 스타일이었다.

이 스타일은 애초의 비틀즈 멤버였던 스튜어트 서트클리프(Stuart Sutcliff)를 통해 도입되었다. 이 스타일은 프랑스식 세자르 커트의 일종으로 이마를 살짝 덮는 앞머리가 특징이다. 머리에 기름이나 포마드를 바르지 않았다. 이것은 새로운 스타일로서 기성세대와는 거부감이 있었으나 청년들은 감미롭고 사랑스러우며 이쁘다고 생각하며 모방하기 시작했고 기성세대들은 냉소적으로 대하였다. 이 커트의 이름은 mop 톱(mop top)으로 비틀즈 커트는 전 세계적인

50) Dylan Jones, Haircults, Thames & Hudson, 1990, p50

로 모방되었다.⁵¹⁾



<그림50> 모즈 차림의 비틀즈

1960년대 후기로 갈수록 비틀즈도 히피 스타일과 만나게 된다. 머릿결은 스트레이트로 하고 앞 프린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를 길게 길렀다. 더 길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헐렁한 셔츠, 웨이스트 코트의 전형적인 히피 차림이었다.

(3) 비달 사순 헤어(Vidal Sassoon Hair)

비달 사순이 개발한 쇼트커트 헤어스타일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기본적인 직모 스타일에 각을 주고 짧막하게 다듬은 스타일이었다. 앳된 청소년 같은 중성적인 분위기를 내는 것이 포인트였다.

비달 사순의 헤어는 일단 편하다. 한 번의 손질과 샴푸만한 후 빗기만 하면 헤어스타일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어로 매만지면 살아 있는 머리결이 될 수 있었다. 이전의 긴 시간 동안의 머리 손질과 세팅, 머리에 래커칠 등으로부터 여성들은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신분의 상징으로서 돈과 시간적

51) Dylan Jones ; Haircults, Thames & Hudson, 1990, p48

여유가 있는 계층만이 즐길 수 있었던 헤어드레싱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제 고객들은 집에서도 자기의 스타일을 쉽사리 연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이를 걸러 미용실에 가야 했던 것이 4-6주 후에 미용실에 가면 되어 여성들은 자유를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커팅의 혁명적인 체계는 마법과도 같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수천 수만의 미용인들을 끌여 들였으며 미용인의 위치를 한결 끌어 올렸다.

비달 사순은 능숙한 커팅으로 유명했다. 그의 커팅은 얼마를 자르고 얼마를 남겨 놓을 것인가에 집중되는 데 그 기술이 정말 중요하며 몇 밀리미터 속에 기술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작은 커트의 조합으로서 스타일이 창조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커트를 할 수는 있으나 예술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머리카락은 비교적 깔끔한 모양에 전체 길이가 층을 이루었으며 손질하기가 쉬웠다. 비달 사순의 테크닉은 60년대를 거치면서 몇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형태(the Shape) : 사순의 첫 번째 독창적인 커팅은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1959년에 그는 자신의 테크닉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헤어스타일을 창안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형태'라고 불려진 이 스타일은 여성의 머리에 자연스러운 흘러내림을 준 최초의 커트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스타일은 목덜미를 드러내고 머릿결을 얼굴 앞에 내놓음으로써 머리결과 얼굴 윤곽이 조화를 이루게 했다.



<그림51> '형태'

그레이스 코딩턴(Grace Coddington) : 1963년도에 발표되었으며 비달 사순에 의해서 커팅된 그레듀에이티드 보브 스타일이다. 패션쇼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델 그레이스 코딩턴이 등장했을 때 관객은 놀라워했었다. 새로운 커팅

에 대한 평자들의 반응은 조심스러운 것이었지만 이 커트의 사진은 모든 출판물에 실렸었다.



<그림52> 그레이스 코딩턴



<그림53> 낸시 콰

낸시 콰(Nancy Quant) : 1963년 발표된 진보적인 보브(Bob) 스타일을 선사 받은 사람중의 한 명인 여배우 낸시 콰의 이름을 따서 콰이라고 불리게 된 이 스타일은 기존의 고전적인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다. “뒷머리 중앙을 짧게 커트하고 얼굴 쪽으로는 점점 길게 커트하는 것으로 얼굴 옆, 머리의 사선이 턱 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비달 사순은 말했다. 풍성하고 가볍게 출렁이는 머릿결은 끝에서는 부드럽게 말린다.

파이브포인트(Five Point) : 1964년에 나온 기하학적인 커트로 비달 사순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으며 가장 본질적인 테크닉이라 할 수 있다. 모발의 길이는 목 위까지 짧게 내리고 머리를



<그림54> 파이브 포인트

예리한 직선으로 잘라 다섯 개의 각을 주는 방법이며 양 옆은 레이어가 되어 있고 크라운에서부터 시작되는 깊은 프린지와 연결되는 각도로 되어 있다. 순은 바우하우스 커트라고 부르는 핵심이 모두 들어 있는 순수 기하학이라고 말했다. 이 커트는 헤어의 완벽하고 깔끔한 라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머리를 흔들면 머릿결은 흔들리다가 금세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비달 사순은 이 커트를 가장 완벽한 커트라고 하였다. 그 후에 나오는 기하학적인 컷의 원조가 되는 스타일이다.

비달 사순이 헤어를 디자인한 모델 그레이스 코딩튼(Grace Coddington)을 사진가 데이비드 몽고메리(David Montgomery)가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였다.

비대칭 커트(Asymmetric Cut) : 머리의 한쪽은 각진 프린지로 하고 다른 한 쪽은 커트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 두어 안쪽으로 기울어진 비대칭형 커트이며 이 오리지날 커트는 여배우 도난 브룩(Dornan Brook)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비달 사순의 작업 중에 그녀는 멈추도록 요구했고 그녀만의 스타일이 만들었다.



<그림55> 비대칭 커트

기하학적 커트(Geometric Cut) : 1965년도에 발표되었으며 미국에서 발표되었다. 비달 사순이 미국 살롱을 오픈하면서 선보인 현대적인 스타일이다. 더욱 기하학적인 시원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 건축사조인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머리 길이는 턱 위까지 내려 올 정도로 짙은 모양이었다. 기하학적인 머리칼에 가려진 옆모습이



<그림56> 기하학적 커트

냉정한 듯 하면서도 아주 우아하게 느껴진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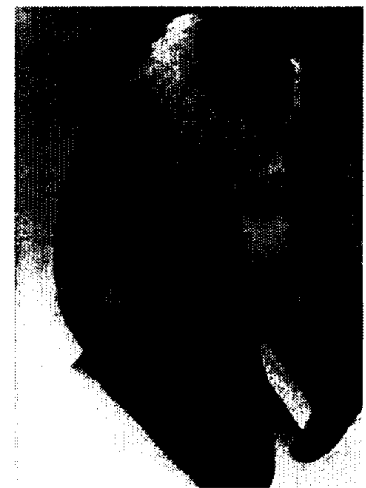
충진 기하학적 커트(Acute Angle) : 이 커트는 1966년에 발표되었으며 날카롭고 예리한 각이 특징인 이 커팅은 비달 사순사의 로저 톰슨(Roger Thomson)에 의해 제작되었다. 오리지널 커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커트는 더욱 짧아지고 찰랑거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 층이 저 있었다. 양옆은 앞머리의 중앙 부위와 삼각형을 이룸으로써 뒷머리의 기하학적인 테마로 이어졌다.



<그림57> 충진 기하학적 커트

에이라인 보브(A-Line Bob) : 이 컷은 1966년 당시 로마에서 활동하던 디자이너 밀라 쉐(Mila Schoen)의 패션 컬렉션을 통해 발표되었다.

헤어 길이는 어깨 주위까지 내려오며 아래로 내려올수록 풍만해지는 스타일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모발을 좌우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으며 움직임이 있는 모발은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이것도 아주 정교한 커팅 테크닉으로써 완성될 수 있었다.



<그림58> 에이라인보브

페기 모팻(Peggy Moffat) : 1966년 배리 레트건(Barry Letegun)이 사진을 찍어 파리-마치(Paris-Match) 잡지에 소개되었다. 비대칭의 기하학적인 커팅법이다. 비대칭의 미묘한 느낌을 주면서도 정돈된 느낌이며 아주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52) 임석중, 패션 트렌드와 패션 스타일의 상관 분석, 한성대 예술대학원, 2003, p51

그리스 여신 스타일(Greek Goddess) : 1967년에 발표된 이것은 미용계의 혁명이라 불릴 정도의 혁신적인 스타일이었다. 비달 사순은 옛 그리스의 여신상을 연구하여 헤어로 표현하였다. 짙막한 단발에 퍼머넌트를 해서 곱슬곱슬하게 한 다음 그의 헤어 커팅을 하고 자연 상태로 말려서 이 스타일을 만들었다. 현대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이 감도는 독특한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로서 비달 사순은 헤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림59> 그리스여신 스타일

이사도라 커트(Isadora Cut) :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kan)의 춤 동작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된 스타일이다. 비달 사순이 새로운 예술적 경로를 밝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모발은 턱 선에서부터 뒤쪽 라인으로 쏠려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며 커팅 라인에 의해 모발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프로필 즉 옆모습이 더 돋보이는 스타일이다.



<그림60> 이사도라 커트

비달 사순이 선호한 헤어 색깔은 검정색이었다. 검정색은 커트된 헤어의 모양을 더욱 분명하게 살려 주었다. 그러나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블론드, 노란색, 갈색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비달 사순은 헤어드라이어를 스타일을 마무리 짓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생각했다. 1960년대 후반에 작은 헤어드라이어(hair dryer)가 널리 사용되었다. 사순의 모든 헤어 스타일리스트들이 드라이어를 쓰는 훈련을 받았고 대부분의 고객들도 헤어드라이어를 지니게 되었다.

또 다른 도구는 전기 스팀 롤러(heated steam roller)였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롤러, 핀 켈, 클립을 대신했다. 이 뜨거운 롤러는 세팅 시간을 줄인 반면 스타일일의 선택 폭을 넓혀 주었다. 우선 머리에 말기 전에 20개의 플라스틱 롤러는 각각의 작은 스탠드에서 따뜻하게 데워지고 롤러가 식어가면서 머리결은 곱슬곱슬해지고 찰랑대기 시작한다. 이 스팀 롤러를 두고 미국의 어느 편집자는 아이언 이래로 가장 빠르고 편한 헤어 컬링 기계라고 썼었다.

비달 사순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이태리, 미국에서까지 성공을 거두었고 전 세계의 유명한 예술가, 배우, 영화감독,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을 하였다. Vidal Sassoon의 미용 기술은 미용계 뿐만 아니라 패션계까지 활력을 불어넣었다. 오히려 헤어가 패션의 유행을 선도하는 장르가 되었다.

비달 사순의 등장으로 헤어가 앞서서 패션의 분위기를 먼저 결정하였다. 디자이너들도 헤어의 분위기에 맞추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헤어드레스가 아니라 중요한 패션메이커가 되었다. 그의 헤어 스타일링은 의상 디자이너의 자유분방한 실험을 완벽하게 뒷받침 해주었다.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혁명적인 진전을 이루어 낸 것이다.

그는 패션 디자이너인 마리 쿼트를 필두로 엠마뉘엘 웅가로, 파코 라반, 앙드레 꾸레주, 피에르 카르맹, 밀라 손, 루디 게른라이히(Rudi Gernreich) 등과 함께 작업을 하였다.

마리 쿼트는 동업자와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쿼트는 Vidal Sassoon에게서 머리를 자주 깎았다. 1963년에 마리 쿼트는 Vidal Sassoon에게 모델의 목 위로 흘러내리는 거추장스런 헤어에 대해 불평하자 Vidal Sassoon은 과감하게 한번 잘라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마리 쿼트가 동조하였다. Vidal Sassoon의 생각은 간단한 것이었는데 뒷머리 중앙부를 짧게 커트하고 얼굴 쪽으로 오면서 점점 길게 커트하는 것이다. 얼굴 옆면의 턱 선이 돋보이는 아이템이었다.⁵³⁾

웅가로는 Vidal Sassoon과 공동 작업으로 파리 컬렉션에 패션 디자이너로서 데

53) Dylan Jones ; Haircult, Thames & Hudson, 1990, p53

뷔하였다. 그의 컬렉션에서 비달 사순은 비대칭의 쇼트 헤어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것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컬러는 오렌지, 핑크, 청록색 등 대담하게 사용하였다.

꾸레주의 컬렉션은 우주 공간 같은 분위기의 미래적인 룩을 제시하였다. 비달 사순이 이 컬렉션에 헤어를 담당하였다. 대담하고 기하학적인 커트로 주목을 받았다. 이 컬렉션은 무엇보다도 비달 사순의 헤어 디자인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헤어의 선과 선, 각과 각, 면과 면의 대비가 돋보이는 스타일이었다.

1966년에 비달 사순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디자이너인 밀라 손의 컬렉션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이탈리아에 소개되었다. 쇼가 진행된 이틀 동안 39개의 신문사와 잡지사들이 그를 취재했다. 비달 사순이 헤어컷을 한 페기 모팻이 무대로 나왔다. 그리고 올리버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가 헤어스타일을 보완할 수 있는 삼각형의 플라스틱 안경을 디자인했다.



<그림61-62> 비달 사순의 루디 게른라이히를 위한 작품 1,2

오리지널 커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커트는 더욱 짧아지고 찰랑거리는 효과를 더하기 위해 층이 져 있었다. 머리 양옆은 앞머리의 중앙부와 역삼각형

을 이름으로써 기하학적인 묘미를 더했다.

창의적인 디자이너였던 루디 게른라이히와 공동으로 실험적인 작업을 하였다. 게른라이히는 1964년 탑플리스(topless) 수영복을 발표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시스루(see-through) 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⁵⁴⁾ 비달 사순은 그와 함께 독창적인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짙막하고 각이 저 보이면서도 유려한 헤어스타일이 기본이었다.

(4) 트위기 헤어(Twiggy Hair)

본명이 리즐리 허니(Lizley Horney)인 이 영국 소녀는 키가 158센티미터인 15세의 가냘픈 소녀였다. 그녀는 왜소한 몸매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체구로 모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1960년대를 대표하는 청순한 모델로 기억된다. 그녀의 기본 스타일은 여중생 소녀 혹은 선머슴에 같은 분위기다.⁵⁵⁾



그녀는 마리콰트가 디자인한 미니스커트를 입어 <그림63> 트위기 헤어 세계적인 유행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녀의 기본 스타일은 미니스커트에 가죽 부츠 차림이었다. 그녀를 통해 비달 사순은 헤어와 메이크업을 연출하였는데 짧고 둥근 커트 스타일의 머리에 어두운 색으로 강조한 눈, 창백한 입술 화장으로 초연하고 약간 염세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짧은 머리는 정확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뒷머리는 꼬리모양으로 1인치 정도의 길이이고 앞쪽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으며 밝은 갈색 머리가 선호되었다. 머리카락은 깨끗하게 커트되었고 전체 길이가 층이 났으며 손질하기 쉬웠다. 보이쉬 스포티 헤어 커트는 소년처럼 보이는 스타일로 1920년대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의 변형으로 푸딩 그릇 같은 모양새이다. 그리고 트위기의 또 하나

54) Peggy Moffit, W. Claxton ; The Rudi Gernreich Book, Rizzoli, 1991, p70

55) Dylan Jones ; Haircults, Thames & Hudson, 1990, p47

의 스타일은 인형 같이 꺾어진 소녀 스타일이었다.

(5) 듀오 라인(Bob Style)

1960년대 초에 여성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으며 앞머리 부위와 귀 양 옆에 높이를 준 생동감 있는 헤어스타일로 모발 끝 부분을 부풀려 양감을 준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앞의 높이와 양옆의 부풀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듀오 라인(duo line)이라고 불려졌다.

이 헤어스타일은 프랑스 미용 고등조합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발표되자마자 전세계에 유행하였는데 이 스타일은 크라운 부분을 높이 올려 부드럽게 웨이브를 준 심플한 모양의 헤어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클래식한 분위기의 헤어스타일이었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이 스타일은 헤어로션이나 헤어드라이어로 다양하게 손질하여 변화를 주었다.

슈프림즈라는 미국의 팝 가수 그룹에 의해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⁵⁶⁾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바가지를 얹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일명 바가지 스타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6) 이사도라 스타일(Isadora Style)

세계적인 무용가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에 의해서 빛을 보게 된 이 스타일은 그레쥬에이션 보브(Graduation Bob) 스타일에서 파생되었다. 이 스타일은 귀여움을 연출하는 스타일로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았다. 귀가 반쯤 나오는 머리 길이에 그레쥬에이션 보브 스타일을 이사도라로 파생시켜 프론트 부분에 뱅을 만들어 둥글게 마무리하여 콘케이브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또 다른 표현으로 투박하면서도 심플한 스타일로 앞부분은 바가지 스타일로 하고 네이프 부분은 상고 스타일로 치켜 올려 시원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56) Dylan Jones ; Haircults, Thames & Hudson, 1990, p47

(7) 히피 헤어(Hippie Hair)

1960년대 후반 들어 히피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젊은이들이 무리 지어 사회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기성사회를 거부하며 특이하게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행동은 기하학적이고 인위적이며 상업적인 패션 스타일에 대한 반항적인 표출이었다. 그들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제 3 세계 민속풍의 이국적인 취향을 강조했다.

풀어헤친 긴 머리가 히피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자연과 자유를 상징하였다. 그리고 어떤 머리 손질도 거부했다. 이른바 히피들은 노 헤어(No Hair)를 표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64> 히피 룩



<그림65> 히피헤어스타일

머리 형태에 일정한 틀을 주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긴 머리를 다듬지 않은 채로 그대로 풀어 헤쳐서 자연스럽고 야생적으로 보이는 모양을 내었다. 가끔 퍼머넌트까지 한 긴 머리가 있었고 남미의 인디언처럼 구슬을 꿰 머리카락과 스카프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머리의 색조는 기본적으로 검정색이 많았고 화장은 거의 안 하는 게 기본이었지만 복숭아색, 갈색, 회색 메이크업으로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몸에 꽃무늬와 다양한 색깔로 알록달록한 장식을 표현하였다. 카프탄, 패치워크, 플라스틱 팔찌, 발찌 등 특이한 차림새가 유행하였다.

히피들은 이전 시대의 의식적으로 곱게 다듬어진 머리를 거부하고 헝클어진 자연스러운 머리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다. 히피의 헝클어진 머리 형태는 이전 시대에 유행했던 짧고 잘 꾸며진 머리에 대한 반발이었다. 머리가 길수록 사회에 대한 반발이 더 큼을 의미했다. 또한 그것은 환각제에 의해 고양된 록 가수의 헝클어진 머리에 대한 모방이기도 했다.

근원적으로는 물질만능주의를 피해 자연에서 진선미를 추구하려던 자연회귀 욕망, 월남전의 거부로 인한 약소국과의 정신적인 결속으로 생긴 에스닉 취향, 자신들이 품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이상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히피스타일은 흑인들의 아프로 스타일과 고도로 장식된 사이키델릭 스타일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그림66> 아프로 헤어



<그림67> 잭슨스-아프로헤어

1960년대 말 처음 미국 흑인사회에서 나타난 이 스타일은 꼬불꼬불하고 부시시해 보이는 흑인 특유의 머리를 별 장식이나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빗질하여 부풀린 것이었다. 초기에는 모발의 높이와 넓이를 같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초기에는 좀 길게 나타났으나 그 후에는 ‘내추럴(natural)’로 알려진 아프로 보다 짧은 머리가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여성들은 아프로 퍼프(afro-puff)라는 가운데 가르마를 하고 머리를 양 귀의 옆으로 모아 부풀리기도 했다.

자유롭고 기괴하며 이른바 정신병자같이 사이키델릭한 모습이 기본이다. 이것은 히피스타일이 정교하게 다듬어져 극단화된 형태다. 요란한 컬러, 디테일의 강조, 미묘한 액세서리의 활용으로 아주 아찔한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현란한 색상의 염색기술이 돋보였다. 사이키델릭 룩에서는 패션과 헤어는 다시 고도로 접목된다.⁵⁷⁾

4) 펌과 염색(Permanent Wave & Coloring)

196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펌과 커트는 세팅 스타일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사용되었다. 펌을 하더라도 반드시 세팅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비달 사순이 ‘워시앤드웨어(wash & wear)의 펌 개발에 따라 세팅하지 않는 펌 그 자체의 독창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나무뿌리처럼 술이 많은 커트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⁵⁸⁾ 이제 펌은 세팅을 보완하기보다는 커트 스타일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비달 사순의 멤버인 애니 험프리(Annie Humphery)는 오리지널 펌을 개발하였고 파이프 클리너(pipe cleaner), 플랫 로드(flat rods), 접착 테이프, 클램프(clamp), 커버드튜브(covered tube), 전화선 심지어는 레코드 어댑터 디스크를 롤러로 사용함으로써 펌 기술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페리미터(perimeter), 리버스 윈드(reverse wind), 위브(weave), 슬라이스 펌(slice perm) 등을 통해 부분 펌 혹은 멀티 텍스처적인 펌을 시도하였다. 그녀는 심지어 스트레이트 펌과 헤어 컨트롤 문제를 해결하는 언더 펌을 개발해냈다.

57) Nigel Cawthorne ; Sixties Source Book, Chartwell Books Inc., p.119

58) 비달 사순 런던

1960년대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머리 색깔은 백금색 이었는데 빨리 자라는 모근으로 인해 자주 염색을 해야만 했다. 모발에 웨이브를 줄 수 있는 새로 등장한 가열 철 로드 덕분에 미용인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다. 모발은 점점 더 장식적이 되어 염색과 탈색 기술이 증진되었고 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주 미묘한 색상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비달 사순도 여러 연예인으로부터 염색을 주문 받게 되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로렌스 테일러드(Lawrence Taylord)는 스타들의 컬러리스트가 되었고 그의 염색 테크닉은 연예계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가 염색해 준 배우들은 영화 <닥터 지바고>의 줄리 크리스티(Julie Christie), <반발>의 카트린느 드뇌브(Catherine Deneuve), <시종>의 제임스 폭스(James Fox) 등이 있었다. 비달 사순도 그의 정확한 염색 테크닉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다.

브릿지 스타일도 나왔는데 군데군데 뗏슈를 정해서 탈색시킨 뗏슈홀로레가 유행을 타기 시작하였다. 단순하고 칙칙한 색상에서 포인트를 주는 아이디어는 참신하기까지 하였다. 양감을 주는 브릿지 스타일은 어두운 색에 포인트를 주어 신선함을 주었으며 감정 없는 머리에 표정을 주었다.

5) 가발(Wigs)

1960년대는 또한 가발이 실용적인 제2의 머리가 되었다. 옛날의 복잡한 가발과는 달리 머리모양을 쉽게 만들어 쓰기 위한 것이었다. 재클린 케네디는 1962년 유럽 순방 때 가발을 16개나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가발은 비싼 편이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기계로 짠 저렴한 가발들이 대중화되었다.

(1) 슈프림즈(Supremes)

미국 흑인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었던 흑인 여성 그룹이던 슈프림즈는 백코 밍하거나 부풀려서 손질하던 머리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발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자서전에서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것보다 가발로 머리를 바꾸

어 주는 게 훨씬 쉬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비탈 사순의 헤어스타일이 응용된 고급 가발을 썼다. 가발의 모양도 크기도 다양했다. 특히 리더였던 다이아나 로스는 매스컴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2) 존 스테판(John Stephen)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였던 존 스테판의 근사한 가발이 인기가 있었다. 그는 남성용 가발을 디자인하였는데 카프탄 재킷, 벨벳 바지, 핑크 빛 셔츠와 어울려 멋을 내었다. 긴 머리의 가발은 매우 환영을 받았으며 짧은 머리의 가발도 있었다. 그 후로 미국에서도 남성용 가발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고 백화점이나 뷰티살롱에서 구입할 수도 있었다.⁵⁹⁾



<그림68> 슈프림즈의 가발



<그림69> 스테판의 가발들

(3) 비틀즈(Beatles)

비틀즈 가발도 한 때 매우 인기를 누렸는데 이것은 키치문화의 한 예로 보면 될 것이다. 1964년 미국에서 비틀즈 가발은 수천 개가 제조되었고 잘 팔려 시장성이 높은 품목이었다. 개봉하지 않은 가발은 작은 검정 나일론 깔개처럼 보였다.

59) Dylan Jones ; Haircults, Thames & Hudson, 1990, p60

(4) 아프로(Afro)

1966년에는 기하학적 유행이 지나고 여성스러움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장-루이 다비드(Jean-Louis David)가 아주 아름다운 아프로(Afro) 가발을 선보였다.

아프리카 스타일의 아프로(Afro) 가발은 흑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1968년 런던 로얄 버라이어티 쇼에서 아프로 가발을 쓰고 나타난 여가수 다이아나 로스(Diana Ross)가 화제가 되었다.

가발은 정치적으로도 활용되었는데 미국의 교도소들은 모든 흑인 입소자들의 머리를 자르고 가발을 쓰게 하기도 했다.

(5) 비탈 사순

비탈 사순도 가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1960년대에 비탈 사순이 커트하고 스타일링한 머리들은 대부분 가발이었다. 슈프림즈의 가발을 비롯하여 바네사 레드그레이브(Vanessa Redgrave)가 이사도라에게 바치는 영화를 만들 때 머리위에 보브 클래식 가발을 뒤집어쓰고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가발을 헤어 커팅에 사용하는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70> 비탈사순의가발



<그림71> 원자폭탄 가발

(6) 원자폭탄 스타일(Bomb Style)

1962년에는 디자인된 가발을 이용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는데 마치 원자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연상시킨 이 모양의 가발을 시사 주간지 타임(Time)지는 실용적이면서도 매우 우아하다고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높이 솟은 머리의 윗 부분을 가발로 만들었는데 네 개의 핀을 이용해서 손쉽게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외 패션쇼에서 많은 가발들이 사용되었다.



<그림72> 염색한 가발머리



<그림73> 이브생로랑의 가발



<그림74> 게른라이히의 스모



<그림75> 게른라이히의 가발

6) 헤어 제품

1950년대에는 모발 세척 후 건조시키기 전에 머릿기름을 사용하였으나 1960년대에는 헤어스프레이가 발명되어 머릿기름을 대체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모발의 다양한 유형에 접목할 수 있는 식물성 성분으로 된 모발 관리용 샴푸가 출시되었다. 이전까지의 모발 관리는 단순히 지성, 건성, 갈라진 모발 등에 국한되었으나 이 새로운 샴푸는 모발 영양 공급용, 비듬 방지용, 모발 활성화용, 모발 광택용 등 약효 성분이 포함된 것이었다.

프랑스 회사 클로란(Clorane)이 헤어 전문 제품을 만들어 인기를 끌었는데 1965년에는 약효 성분이 포함된 식물성 샴푸를 개발하여 성공하였다.

그리고 금발을 위해서는 허브인 카모마일 성분을 포함시켰는데 자연스런 모발 광택 효과 때문이었다.

그리고 비달 사순은 소비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비달 사순 제품의 생산 라인을 만들었으며 그 곳으로부터 샴푸, 컨디셔너, 무스, 헤어스프레이 등을 만들었다. 비달 사순의 헤어 제품은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7) 주요 헤어 디자이너

(1) 비달 사순(Vidal Sassoon)

그는 이른바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킨 헤어 디자이너였고 가난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인간 승리의 귀감이었다. 1960년대의 헤어에 가장 특징적이면서 명확한 스타일로 지지를 받았다. 그는 진정으로 1960년대를 사랑했노라고 회고한 적도 있다.

비달 사순은 1950년대에 런던에서 수습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미용에 눈을 뜨게 된다. 스페인계와 영국계 혼혈인 그는 10대 중반에 미용실의 견습공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 미용을 가르쳐 준 사람은 유명한 미용사였던 아돌프 코헨(Adolph Cohen)이었다.



<그림76> 마리 쿼트와 비달사순



<그림77> 게른라이히와 사순

그리고 바로 런던 중심부의 웨스트엔드(West End)로 자리를 옮겨 미용 테크닉을 자세히 익혔다. 이 때 레이몬드(Raymond) 선생으로부터 미용기술 이외에도 나뭇대로의 철학적인 지도를 받았다.

그는 손님들이 자기가 해준 스타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돌려보냈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으며 나중에는 까다로운 연예인, 모델, 억만장자 등이 그의 고객이 되었다.

나중에 비달 사순은 자기도 의상 디자이너가 신체구조를 구상하는 것처럼 머리의 구조를 구상하며 천을 재단하는 것처럼 머리를 자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1960년대 초 비달 사순은 뉴욕에서 바우하우스 건축가인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를 만났다. 그는 건축미학의 창조자로서 머리에 부분을 나누어 주면서 기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머리를 잘라내는 헤어 커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해서 창조된 스타일이 바로 파이프 포인트(Five Point) 커트다.

비달 사순은 헤어 드레싱을 건축과 비교했다. 건축은 자연적인 풍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구조를 창조하는데 헤어 디자인도 그 일에 비유될 수 있다고 했

다.

그는 인간 얼굴이라는 환경 속에서 절묘하게 커트를 하여 헤어로 일종의 건축물을 만든 셈이다. 건축가는 도시의 질을 높이고 헤어 디자이너는 사람들의 얼굴의 질을 높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방에 앉아 있다면 당신의 머릿결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일부이다. 나에게 헤어 커트는 건축과 같다. 나는 사람이란 살아 있는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고 가위를 든다. 사람은 건축물과 같다. 나는 헤어 디자인을 시각 예술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리고 헤어 커팅을 강조하면서 “헤어드레싱은 커트이다, 헤어 커팅의 목적은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하학의 일종이다. 커트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잘 커트된 머리는 설령 물 속에 빠져 있더라도 아름다워 보인다.” 라고 말했다.

1968년에 비달 사순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손님(Sorry I Kept You Waiting Madame)’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그리고 부인의 이름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년(A Year of Beauty and Health)’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여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책의 발간으로 그는 세계 미용과 건강 분야의 선도적인 인물로 명성을 쌓았으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의 게스트로서 자리를 굳혔다. 텔레비전에서는 당신의 새로운 날(Your New Day)이란 코너로 그의 헤어쇼가 자주 방영되어 대단한 인기를 끌기도 했다.

비달 사순의 헤어 살롱은 여성들이 머리를 하러 다니는 곳 이상이었다. 편안한 분위기에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살롱은 이벤트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스타와 유명인, 주부와 여직원들이 어울려 있었다. 고객이 저명한 사건, 부인이건, 여점원이건 간에 비달 사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언제나 하나의 원칙만이 있을 뿐이었다. 우리 살롱에서는 누구나 환영 받는다. 우리는 돈에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서비스하는 것이다. 나는 사회적 지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고객의 머리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한다.

(2) 마리아 카리타(Maria Carita)

마리아 카리타는 스페인에서 온 이주민으로 프랑스 툴루즈에서 자랐다. 어릴 시절부터 동생 로지랑 미용수습생 시절을 시작하여 두 자매는 툴루즈에 조그만 미용실을 개업한다. 언니인 마리아는 머리를 잘라 주고 동생은 계산대에서, 남동생은 샴푸를, 어머니는 가게의 문을 닫는 역할을 맡았다. 마리아는 황금으로 만든 손을 지녔다. 라는 칭찬을 받았다. 성공을 거두어 마침내 파리의 생토노레가에 살롱을 열게 된다. 마리아와 로지는 헤어 사업가가 되어 여러 매스컴에 소개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알려졌다. 마리아는 “못 생긴 여성은 없다, 단지 생기 없는 삶을 살거나 불행한 삶을 사는 여성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림78> 카리타 자매



<그림79> 카리타의 해바라기 헤어

마리아는 미용에 심리학을 접목하여 개혁을 일으켰다. 세심하게 고객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화장, 피부관리, 의상, 액세서리 등을 접목시켰다. 카트린느 드뇌브와 브리지트 바르도도 마리아의 고객이었고 파리의 상류사회는 카리타 자매를 신뢰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미용학교도 개원하였으며, 보석, 액세서리 분야의 사업도 전개하였고 1968년에는 남성들을 위한 살롱도 문을 열었다.⁶⁰⁾

(3) 알렉상드르 레이몽(Alexandre Raymond)

프랑스 태생인 레이몽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 의해 마치 딸처럼 자랐다. 그는 인형을 가지고 즐겨 놀았다고 한다. 그는 쉬농 스타일로 명성을 얻었으며 그의 첫 작품은 실제 모발과 인조 모발을 혼합하여 연출한 것이었다.

1952년에 처음 그의 살롱을 오픈 하였으며 살롱 이름을 파리의 알렉산더(Alexandre de Paris)로 이름 붙였다. 스타급 연예인들이 그의 주 고객이었다. 그는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해 헤어스타일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백콤 쇼트 헤어를 개발하여 프랑스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다.⁶¹⁾

(4) 자크 데상주(Jeaques Dessange)

자크 데상주는 프랑스의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가게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는 기술을 배웠다. 젊었을 때 그는 파리의 루이 제르베(Louis Gervais) 같은 큰 미장원과 연결되어 그는 움직임이 있는 커트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부분적으로 빗지 않은 듯한 머리 스타일(coiffe-decoiffe)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1956년 파리의 상젤리제에 자신의 살롱을 오픈 하였고 영화배우나 쇼 배우들 등 유명인사들을 손님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그는 비달 사순과 공동으로 컬렉션을 열기도 하였다.

그는 1960년대에 본격적인 헤어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그는 나이 40세에 본격적인 미용 사업가로 나서게 된다. 그는 기업을 차리고 그의 팀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오늘날엔 세계 주요 도시에 그의 미용실이 있다.

미용사 개개인의 개성을 적용하는 것이 자크 데상주의 기본 취지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두발 테크닉뿐만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편안히 진정시키고 휴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60) Nathalie Chaine 외 ; Beauty-the Twentieth Century, Universe, 2000, p163

61) 56과 참고문헌 동일



<그림80> 알렉상드르



<그림81> 크리스티안

(5) 크리스티안(Christiaan)

1945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크리스티안은 이발소 집안의 장남이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자랐고 군대에서도 장교와 동료들의 머리를 잘라 줄 만큼 유명해졌다.

그는 뉴욕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여러 잡지사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었고 미국 보그 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하였다. “헤어는 우리의 신체 중 유일하게 유동적인 부분이다. 헤어를 다루는 것은 물과 같다. 나는 결과가 아니라 헤어를 다루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 그는 밝힌 바 있다. 그는 버즈 컷(Buzz Cut), 디지트 컷(Digit Cut)을 선보이며 헤어스타일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⁶²⁾ 그는 헤어 스타일링의 무정부주의자로 불린다. 그의 스타일은 과감하고 와일드하게 느껴진다.

62) Beauty & Health 연구회 ; Hair Style-세기의 헤어스타일리스트, 현문사, 2000, p31

표1 : 비탈 사순과 패션디자이너의 공동 작업

디자이너 이름	패션 경향	비탈 사순의 헤어 커트
마리 콰트	1963년에 비탈 사순에게 모델의 머리결을 의상 위까지 늘어뜨려지는 콰트 스타일의 헤어가 탄생.	모델이었던 트위기에게 기하학적인 숏 커트, 그레이스 코딩턴에게도 새로운 커트를 도입함.
임마누엘 칸	정확한 재단과 곡선으로 알려진 전위적인 디자이너. 아래로 쳐지는 의상 컨셉.	턱 끝까지 내려오고 앞쪽으로 갈라지는 스트레이트쇼트헤어 연출.
앙드레 쿠레주	기하학적, 우주시대적인 분위기의 디자이너로서 미니스커트 점퍼 등으로 유명.	쿠레주의 패션처럼 각이 지고 목을 드러내는 비대칭의 기하학적 쇼트 헤어를 연출.
엠마뉘엘 웅가로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을 표현하였으며 핑크, 오렌지, 청록색 등 대담한 배색 선호.	비대칭적인 쇼트 헤어를 표현함.
파코 라반	플라스틱과 금속 소재를 활용한 디자이너이며 미니스커트 등을 표현.	기하학적 쉬닝인 스퀘어 컬(square curl)을 표현함.
밀라 손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디자이너로 고급의상을 만들었고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삼각형 안경을 쓰는 헤어스타일 연출.	오리지날 커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커트는 더욱 짧아지고 찰랑거리는 효과를 주기 위해 머리에 층이 저 있었음.
자크 티보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호한 디자이너로 드레스의 자유로운 치마 주름을 표현하였고 치마끝은 무릎 위 5인치 이상 올라감.	스트레이트 단발로서 목덜미에서 삼각형으로 커팅하여 옆머리가 길어지면서 한쪽 눈을 가리는 스타일을 표현함.
타이거 모스	미국 디자이너로 미니스커트 모양의 파티 드레스로 유명.	고고장의 사이키델릭한 댄서들의 헤어를 표현.
루디 게른라이히	전위적인 스포츠웨어 디자이너로서 노브라브라(No-Bra-Bra) 수영복을 발표했음.	대담한 기하학적인 커트로서 게른라이히의 유선형 패션과 조화를 이룸.
벳시 존슨	유럽적인 색채와 미국적인 절제된 라인을 결합한 미국 디자이너였음.	미국에서 모델들을 치장해줌.

표2 : 1960년대 Time Chart

년대	NEWS	EVENT	FASHION	HAIR
1960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에 선출 *프랑스 화폐 개혁 *프랑스 원폭실험	*영화 La Dolce Vita, Psycho 개봉	*보앙이 디오르의 디렉터가 됨	*부짱과 비하이브 인기
1961	*베를린 장벽 설치 *모스크바에 스탈린 동상 제거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	*소련 무용가 누레예프 프랑스 망명 *이집트 신전 구제 계획	*쿠레주 매장 오픈 *임마누엘 칸 디자이너로 성공	*재키헤어 인기 *로레알사 최초의 스프레이 출시
1962	*넬슨 만델라 구금 *존 글렌 우주 궤도 비행 성공 *마릴린 몬로 사망	*비틀즈의 첫 싱글 'Love Me Do' 히트 *앤디워홀의 '마릴린 몬로' 발표	*생로랑 매장 오픈 *기성복의 출현 *마리퀴트 미니시작	*퍼머넌트웨이브 *안말음과 걸말음 *듀오라인
1963	*케네디대통령 암살 *소련에서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등장	*비틀즈 대성공 *미국 포크음악 유행	*카르맹의 비틀즈 수트 발표 *마리 퀴트 '진저 그룹' 라벨 시작 *스포티브룩 인기	*클래식 보브 *숏커트 *마리퀴트의 단발
1964	*미국의 월남전 개입 *마틴루터킹 노벨 평화상 수상	*비틀즈의 미국 진출	*루디게른라히창업 *카르맹 '우주' 컬렉션 *쿠레주 유행	*비달사순 파이프 포인트 제시 *슈프림즈 가발 *스트레이트 유행
1965	*L.A.에서 와트 폭동 *드골 프랑스 대통령 재선	*롤링스톤즈 "Satisfaction" 발표	*이브 생로랑의 몬드리안 룩 *파코라반 창조적인 의상 발표 *웅가로 매장 오픈	*히피스타일 헤어 *아프로 헤어 *비달 사순의 기하학적 커트
1966	*중국 문화혁명 *프랑스 NATO탈퇴 *마리 퀴트 미니 보급 공로로 로얄 빅토리아훈장 수상	*사이키델릭문화시작 *히피공동체 출현	*생로랑 리브고쉬 오픈 *모델 트위기 등장	*트위기의 숏 커트 *흑인 미용 발전
1967	*중동 6일전쟁 발생 *약국에서 피임약 판매 *뉴월쓰 법령 채택	*비틀즈의 'Sergeant Pepper' 앨범 발표 *영화 '보니아 클라이더' 개봉 *도어스 "Light My Fire" 발표	*맥시 코트 유행 *피오루치 사업확장 *에스닉이 디자이너 컬렉션에 등장	*우주시대 기하학적 머리 유행 *비달의 그리스 여신 스타일
1968	*마르틴 루터 킹 암살 *수소폭탄 투하실험	*비틀즈 영화 'Yellow Submarine' *영화 '2001 Space Odyssey' 발표	*미니스커트 절정 *개주얼 전성기 *생로랑 사파리재킷	*존 스테판 가발 *페이지 보이
1969	*아폴로11호 달착륙 *중소 국경 분쟁 *베트남 미군 본국 소환 시작	*우드스탁 축제 개최	*스페이스 룩 *생로랑의 팬츠수트 *맥시와 미디 유행	*아프로 헤어 인기 *이사도라 스타일 *식물성삼푸 출시
1970	*드골 장군 서거 *미국헌법에 여성의 평등권리 보장	*유럽에서 환경 보호운동 시작	*진의 유행 *유니섹스모드 출현 *겐조 '정글짐' 오픈	*기하학적, 비대칭 커트 *내추럴스타일인기

IV. 결론과 제언

*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상호작용

격변의 60년대는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짧게 자르고, 뒤로 빗어 올려 다양한 스타일로 개성을 살렸다.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으며 작은 컬과 웨이브는 사라졌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의 성향을 따랐으며 더 이상 세트 스타일(set style)을 따라 하지 않았다. 또한 가발을 사용하거나 염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1960년대의 패션 트렌드 경향을 정리해 보면 쿠티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이 교차한 시대였다. 기성복 산업이 맞춤형 의류산업을 압도한 시대였고 영패션이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당시 패션의 여러 흐름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향을 고찰하였다.

재키룩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젊은 부인이었던 재키의 패션으로 1960년대 중산층에 의해 적극 모방되었다. 밝은 단색의 수트, 필박스 등이 그녀의 아이템이었다. 그녀는 필박스 모자에 어울리는 비하이브 스타일의 머리를 자주 하였다. 비하이브는 모자에 의해 쉽게 주저앉기 때문에 관이 깊고 크기가 작은 필박스 모자와 잘 매치 되었다.

모즈룩은 1960년대 초반 영국 런던에서 파생한 영패션으로 후, 비틀즈, 롤링스톤즈 같은 락 그룹도 동참하였다. 이태리나 프랑스 스타일에 영향받아 세련되고 감각적인 맵시를 즐겼다. 이 당시의 모즈 헤어는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식의 헤어 커트를 선호하였다. 독창적인 모즈 헤어 커트는 백콤한 머리이며 머리의 분할선 높이의 반 정도의 짧은 길이이며 머리 뒷부분을 볼록하게 높여주는 것이며 소녀들은 부풀렸던 머리를 짝 퍼진 형태의 머리로 바꾸었다. 후에 유니섹스 헤어에 영향을 주어 남녀 구분 없이 짤막하고 경쾌해 보이는 단

발머리 스타일이 기본이 되었다.

1960년대 초에 등장한 비틀즈는 말쑥한 모즈 스타일 차림이었다.

머리가 귀 위쪽까지 내려오고 이마와 목덜미를 덮는 스타일이었는데 프랑스식 세자르 커트의 일종으로 이마를 살짝 덮는 앞머리가 특징이다. 머리에 기름이나 포마드를 바르지 않았다. 청년들은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생각하며 모방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비틀즈 커트는 전 세계적으로 모방되었다. 1960년대 후기로 갈수록 비틀즈도 히피 스타일로 바뀐다. 히피스타일의 헤어가 되면서 머리가 길어지고 내추럴한 웨이브를 살짝 곁들였다. 미국에서는 비틀즈 가발도 인기를 누렸다.

미니스커트는 영국의 디자이너 마리 콰트에 의해서 도입되었으며 1960년대의 공전의 히트 상품이었다. 스커트는 무릎 선까지 오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무릎 위로 15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는 마이크로 미니도 있었다. 키가 150센티미터 남짓한 15세의 가냘픈 소녀였던 트위기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청순한 모델로 기억된다. 기본적인 스타일은 여중생 소녀 혹은 선머슴 아이같은 분위기다. 짧막하게 커트한 이 보이쉬한 숏 커트인 헤어스타일은 짧은 미니와 함께 소년 같은 느낌이 강해 귀여운 느낌을 준다.

파리의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은 팝아트를 접목하여 컬렉션을 선보였다. 그는 몬드리안, 앤디 워홀 등의 작품을 응용하여 젊은 감각의 패션으로 승화시켰다. 이 때의 헤어는 내추럴하게 드라이로 끝처리만 굵은 웨이브로 시술하거나 크라운 쪽을 살리는 시농 스타일로 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꾸레주, 파코 라반 등이 펼쳤던 우주 패션은 1960년대에 획기적인 것이었다. 꾸레주는 우주인 분위기의 흰색 혹은 은색의 기하학적인 라인으로 오프 꾸뛰르 패션의 세계를 보여주었으며, 파코 라반은 천이 아닌 금속, 유리, 셀로판지 등 이질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컬렉션을 구성하였다. 이 때의 헤어는 기하학적인 커트와 가발을 주로 사용했는데 가발은 색상이 다양하여 의상과 잘 매치되었다. 그리고 일종의 안티 패션인 히피 패션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히피의 전조는 비트닉스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패션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중고 옷이나 작업복 스타일을 애용했으며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이 스타일이 차용된다. 이 때의 헤어스타일은 롱 헤어가 기본으로 애용되었고 아프로와 내추럴한 스타일이 기본이었다.

히피 헤어는 인위적이고 상업적인 패션 스타일에 대한 반향적인 표출이었다. 그들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제 3세계 민속 풍의 이국적인 취향을 강조했다. 손질하지 않은 풀어 헤친 긴 머리가 히피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자연과 자유를 상징하였다. 그들은 어떤 머리 손질도 거부하였고 머리 형태에 일정한 틀을 주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긴 머리를 다듬지 않은 채로 그대로 풀어 헤쳐서 자연스럽고 야생적으로 보이는 모양을 내었다. 이른바 안티 헤어(anti-hair)의 표상이다.

히피스타일은 흑인들의 아프로스타일과 고도로 장식된 사이키델릭 스타일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아프로 스타일은 미국 흑인들 사회에서 나타난 것으로 부시시해 보이는 흑인 특유의 머리를 별 장식이나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빗질하여 부풀린 것으로 커트는 정원수를 자르듯 굵은 빗으로 전체를 빗어 올리고 걸을 맞추는 테크닉이다.

커트 스타일에 가장 많은 변화를 준 비달 사순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헤어 디자이너이다. 그는 1997년 한국을 방한하여 헤어쇼를 펼치며 다양한 헤어 관련 제품의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가 세운 학교는 헤어 관련 디자이너와 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고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많아졌다. 비달 사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가 창안한 스타일, 테크닉, 미학은 새롭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그가 제시한 스타일은 여전히 현대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비달 사순은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비달 사순은 전 세계의 유명한 예술가, 배우, 영화감독,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도 하였다. 그는 단순한 헤어드레스가 아니라 중요한 패션 메이커가 되었

다. 그는 패션 디자이너인 마리 쿼트를 필두로 엠마뉘엘 웅가로, 파코 라반, 앙드레 꾸레주, 피에르 카르맹, 밀라 손, 루디 게른라이히(Rudi Gernreich) 등과 함께 작업하여 패션의 한 분야인 헤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지금까지 이 논문을 통해 1960년대의 사회 문화 예술적인 배경을 분석하고 패션경향을 설명하였으며, 주요 헤어스타일(hair style)의 경향을 해당 이미지와 결들여 분석하였다.

최근 몇 시즌동안 유행의 복고 경향은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올 가을 컬렉션에서도 복고 열풍은 계속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960년대 풍이 강세이다. 1960년대 월남전의 반전 여론과 지금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전 여론 같은 현 사회적 배경과 유사한 면이 있다.

2000년 전후의 헤어 분야에서도 1960년대 스타일과 아이디어가 활용되고 있다. 월간 ‘뷰티패션’이라는 잡지 최근호를 보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올 가을의 테마는 복고풍이며 전체적으로 풍성한 웨이브와 세련된 컬러가 돋보인다. 특히 내추럴 스타일은 꾸준한 인기 물이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 소비자 미용 연구소의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깊어 가는 가을, 커피 향처럼 부드럽고 모던한 브라운 컬러의 반짝이는 매력과 과거의 팝 아트적인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복고 메이크업을 제안하고 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고, 유행의 주기가 40년마다 반복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1960년대의 젊은이였던 이들이 이제는 중년이 되어 그들의 자녀들이 현재의 젊은 층을 이루고 있다. 1960년대에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는 데 민감했던 부모의 자녀들이 이제 다시 유행에 강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1960년대는 모든 헤어스타일이 공존했던 시기로 기장도 가장 짧은 길이에서부터 가장 긴 기장의 머리까지 다양한 세대였다. 패션의 스커트 기장도 마찬가지로 가장 짧은 미니에서부터 미디, 맥시 등 긴 기장의 스커트를 착용하였

다. 머리가 짧아질수록 스커트 길이도 짧아지고 활동성 있는 옷을 입는 반면, 머리가 길수록 의상도 우아하거나 기장이 길어지는 현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즈룩이 현재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창조되고 있으며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최근 컬렉션에서 모즈룩을 활용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여전히 1960년대의 영 패션은 젊어 보이는 스타일을 시도할 때는 자주 활용되는 아이템이다. 또한 헤어스타일에도 모즈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고 있다. 조금 다르다면 커트 부분에 질감 처리가 많이 시술된다는 점이다. 예전의 1960년대의 무거운 커트보다는 좀 더 가볍고 끝처리가 강조된 샤기(shaggy)한 느낌의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다. 펴이나 염색도 제품의 발달로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1960년대처럼 커트를 보완하는 역할에 미치고 있다는 점은 신기하게도 같다.

1960년대의 패션과 헤어는 지금도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많으며 현대 패션에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가발의 활용이 많았던 시기로 좀 더 상세한 가발의 종류와 역할 또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 과제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민수. 『디자인 문화, 상징의 변증법』, 솔, 1997
- 김창준. 『패션과 아트』, 라사라출판사, 1992
- 김춘득, 『동서양 미용 문화사』, 경춘사, 2002
- 김춘득, 『미용문화사, 경춘사』, 1999
- 류은주, 박경순, 이원희, 강영숙, 『Hair Design & Visagism』, 청구, 2000
- 류지연, 장미화, 이성옥, 『뷰티 코디네이션』, 교문사, 2000
- 이미션 편저, 『Hair Color Art』, 현문사, 1999
- 이연희 이운영, 이현숙, 진성모, 『패션문화』, 예학사, 1997
- 이원경, Hair Concepts & Application, 청구, 2001
- 장미희, 장태수, 『모발관리 & 가발』, 예림, 2003
-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1
- 정현진, 『Dessin de Coiffure』, 청구출판사, 2000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 지상기, 『드라이론 학』, 고문사, 2001
- 한국미용학회, 『미용학 사전』, 신광출판사, 2003
- 허 준, 『현대패션 100년사 그 발전의 비밀』, 월간 멋 창간 6주년 기획, 1999
- 황정원 권대순, 김세옥, 최영진, 『염탈색 이론 및 실기』, 고문사, 2002
- Bond, David,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2000
- Beauty & Health 연구회, 『100 ANS DE BEAUTE』, 현문사, 2001
- Beauty & Health 연구회, 『세기의 헤어 아티스트』, 현문사, 1999
- Beauty & Health 연구회, 『메이컵 & 스타일 100년사』, 현문사, 2001
- Beauty & Health연구회, 비달 사순 50년사, 현문사, 2001

- Block, A., Madge, G., 유길준 역, 『세계패션사2』, 1997
- Grumbach, D., 우종길 역, 『패션의 역사』, 도서출판, 1994
- Heinmann, B., 이명실 역, 『헤어커팅법-Vidal Sassoon』, 정문각, 2001
- Hillier, B., 조규화 역, 『20세기 양식』, 수학사, 1993
- Mendes, V., 김정은 역, 『20세기 패션』, 2003
- Rosetto, I., 이재원 역,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한길아트, 2002

<논문>

- 간문자, 『여성 패션에 표현된 밀리터리 룩에 관한 고찰』,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 간문자, 『저항 패션으로서의 밀리터리 룩에 관한 연구』,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 간문자, 『저항 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미친 영향』,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 간문자, 『청소년문화가 스트리트 패션에 미친 영향』,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 권대순, 『한국 미용 문화의 변천과 소비 형태 연구』, 단국대 경영대학원,
1996
- 권해기, 『1960년대 영국 하위문화 패션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 2002
- 김소영,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2
- 김진숙, 『해방이후 서양의 헤어스타일이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
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대학원, 2003
- 김양결,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 대학원
- 김향란, 『개화기 여성의 머리 양식과 재현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2002
-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 대학원, 1998
- 나윤영, 『한국 여성의 헤어 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1900-1990)』 ,
호남대 대학원, 2001
- 안현경, 『20세기 서구 여성의 머리 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이화여대 대학원, 1995
- 이나경, 『현대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
관동대 대학원 , 1999
- 이주연,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천 분석』 , 충남대학교대학원, 1995
- 임석중, 『패션트렌드와 헤어스타일 변화의 상관성 연구』 ,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3
- 정경희, 『Street Fashion의 발생과 유행현상, 효성가톨릭대 대학원』 ,
1996
- 정임숙, 『20세기 서구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복식 변천에 대한 연구』 ,
한성대 예술대학원, 2002,

잡지

여성동아, 2003년 9월호

Beauty Life, 2003년 2, 3, 4월호

Magazine Seoul Collection Week, March 26, 2003

Weekly Fashion News, October, 20, 2003

<외국문헌>

- Bardrige, 「Letitia, In the Kennedy Style」, Doubleday, 1998
- Baudot, Francois,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e, 1999
- Berge, Pierre, 「Yves Saint Laurent」, Thames & Hudson, 1997
- Bernard, Barbara, 「Fashion In the 60's」, Academy St.Martin's, 1978
- Cawthorne, Nigel, 「Sixties Source Book」, Chartwell Books Inc., 1989
- Chahine, Nathalie 외 5인, 「Beauty-the Twentieth Century」, Universe, 2000
- Connikie, Yvonne,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Batsford, 1990
- Guillaume, Valerie, 「Courreges」, Thames & Hudson, 1998
- Hershkovits, H., 「From ABFAB to Zen」, Paper Publishing Co., 1999
- Jones, Dylan, 「Haircults」, Thames & Hudson, 1990
- Moffitt, Peggy, Claxton, Wiulliam, 「The Rudi Gernreich Book」, Rizzoli, 1991
- Orban, Christine, 「Emanuel Ungaro」, Thames & Hudson, 1999
- Polhemus, 「Street Style」, Shinko Music Pub. Co. Ltd., 1995
- Sasoon, Vidal, 「Contemporary Classics the Vidal Sassoon Way」, Haircare Ltd., 1992
- Takamura, Zeshu, 「Roots of Street Style」, Graphics Co., 1997
- Tucker, A., 「Fashion -a crash course」, Watson Guptill, 2000
- Worsley, Harriet, 「Decades of Fashion」, Konemann, 2000

<인터넷>

www.krservice.com/wontong/home/center

www.cyberbeauty.co.kr/html/hair/hair5_5.htm

www.fashion-a.com/html/thesis/kanmj

www.fashion-world.co.kr/libra/20c/1960.htm

www.fashiontalk.com/theme/hippie/social/social.htm

www.samsung.design.com

vsschoolship.com/about_us/mr_vs_02.htm

www.10000shop.co.kr/fashion/history/1960.htm

culture.w21.net/hhh/history/h_0302a.htm

<Pictures Reference>

Baudot, Francois ; Fashion-the 20th Century, Universe Pub., 1999

-그림 : 21, 22, 24, 26, 27, 28, 29, 33, 34, 40, 70

Beauty & Health 연구회 ; Hair Style, 현문사

-그림 : 80

Beauty & Health 연구회 ; Vidal Sassoon, 현문사

-그림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Bond, D. ; 20세기 패션, 경춘사

-그림: 16, 18, 30, 36, 37, 38, 43

Bernard, Barbara ; Fashion in the 60's, Academy St. Martin's, 1978

-그림 : 17, 19, 32, 50, 62, 68

Cawthorne, Nigel ; Sixties Source Book, Chartwell Books Inc., 1989

-그림 : 1, 2, 3, 4, 5, 6, 7, 31, 46, 71

Chahine, Nathalie ; Beauty-the Twentieth Century, Universe, 2000

-그림 : 64, 77, 78, 79

Connikie, Yvonne,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Batsford, 1990

-그림 : 9, 25, 41, 59, 60

Jones, Dylan ; Haircults, Thames & Hudson, 1990

-그림 : 44, 45, 48, 61, 65, 67, 68, 72

Moffit, P., Claxton, W. ; Rudi Gernreich Book, Rizzoli Int'l., 1991

-그림 : 73, 74, 76

Polhemus, Ted ; Street Style, Shinko Music Pub. Co. Ltd., 1995

-그림 : 12, 13

Worsley, Harriet ; Decades of Fashion, Konemann, 2000

-그림 : 8, 10, 11, 14, 15, 20, 23, 35, 39, 47, 63, 66, 75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Hair Style Trends in 1960s.

Yoo, Meegeum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I considered the theme of this thesis as the study of the change of hair styles in 1960s. I studied the change of fashion and hair styles and analyzed each hair style in those days.

The concept of beauty contains total beauty images including hair style, make-up, nail art, skin care, beauty diet program as well as clothings, accessories. Hair has much more considerable value in the contemporary fashion. Hairstyle could be a certain evidence of fashion trend and mood.

The 1960s, its a revolutionary decade in the way of living. I cam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decade in the respect of fashion and hair culture changes.

First I learned about the outline of cultural history of the decade. This decade included the age of political detente, the arrival at the moon of the spaceship Appollo 11 and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sports and

leisure.

And we examined the art and the popular music of the decade. That's the age of musical bands as Beatles, The Who, Rolling Stones.. and the Doors. They were also fashion leaders in those days.

Now we consider the fashion history about the decade.

Firstly it's said the sixties were the age of change in fashion industry. They had the chase for the new concept of high-qualified ready-to-wears in common.

In the sixties it flourished the major street fashions as Mods, Unisex, Beatniks & Hippie and Psychedelic. They were maintained by lots of youth at those times. And they began to influence the upstream of the high fashion later.

The ready-to-wear industry dominated the fashion industry though the haute couture was alive in Paris.

I searched for the Jackie Kennedys Look, Mods Look, Mary Quant's mini skirts. And I dealt with Yves Saint-Laurent's pop art collections, Courrèges' Space Look, and the futurist Paco Rabanne and Ungaro. And I analysed the anti-fashion movement of Hippies. I referred Unisex mode.

In the next chapter I analyzed the change of hair styles in the decade. I explained about the popular Up Styles as Bouffant, Beehive, Chignon and Tiger Tail. And I continued to learn about Bubble Style, Indentation Style, Straight Permanent and Pony Tail. About cut, I searched for the Mods style, Beatles, Vidal Sassoon's cuts, Twiggy's Hair, Bob Style, Isadora

style and Hippies hair. And I referred about coloring, wigs and hair products.

In the last part I described the influential hair designers in this decade as Vidal Sassoon, Maria Carita, Alexandre, Jacques Dessange and Christiaan.

Now we could see the retrospective phenomenon of sixties style in the contemporary fashion environment.